

64호

2012년 7, 8월호

도립정신 농업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1년 7월 24일(일)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 일정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다

답사단의 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눈빛만은 형형이 빛났던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이
있었습니다. 답사지에서 느낀 가슴 속 깊은 울림과 열정으로 '독립정신'
으로 살아가는 청춘이 되겠다고 다시금 다짐해봅니다.



압록강 너머 군자금 나르던 임시정부 안주인 ‘정정화’

이 윤 옥
(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장강의 물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람들
강물 위에 배 띄워 노래하지만
물의 근원을 캐는 사람은 없다

혈혈단신 여자의 몸
압록강 너머 빼앗긴 조국 땅 오가며
군자금 나르던 가냘픈 새댁
그가 흘린 눈물 장강을 채우고 넘친다

돌부리에 채이면서
몇 번인가 죽을 고비 맞으며
수십 성상 국경 넘나든 세월
거친 주름 되어 끝마다 파어있다

바닥난 뒤희 굶어
배고픈 독립투사 다독이며
가난한 임시정부 살림 살던 나날
훈장 타려 했었겠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뛰어온 구국의 일념
압록의 푸른 물 너는 기억하겠지

피난지 상해에서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맡아 조국 광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주춧돌이 된 정정화 애국지사는 ‘장강일기’에서 “26년이라는 전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나는 임시정부와 같이 살았다. 백범의 말대로 거지나 다름없는 상해 시절 어느 때는 이동녕, 차리석, 이시영 같은 분들과 시장 뒷골목에서 동전 한 닢짜리 중국 국수 찌꺼기를 달걀 사먹기도 했고 등 뒤로 왜놈의 기관총 쏘는 소리를 들으며 임시정부의 피난 짐보통이를 싸기도 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지금 정정화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여성 독립운동가는 216명(2012. 2월 기준)인데 이들은 사회로부터 크게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안타까워 필자는 ‘시로 읽는 여성 독립운동가’ 시집을 내어 현재 40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소개했으며 앞으로 이 작업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옥 중 소 감

수당 정정화(1900 ~ 1991)

아직껏 고생 남아 옥에 갇힌 몸되니(餘苦未盡入獄中)
늙은 몸 쇠약하여 목숨 겨우 붙었구나.(老軀衰弱向息存)
혁명 위해 살아온 반 평생 길인데(半生所事爲革命)
오늘날 이 굴욕이 과연 그 보답인가(今日受辱果是報)
국토는 두쪽 나고 사상은 갈렸으니(國土兩斷思想分)
옥과 돌이 서로 섞여 제각기 옳다 나서는구나.(玉石交叉各自是)
철창과 마룻바닥 햇빛 한 점 없는데(鐵窓地板無日光)
음산한 공기 스며들어 악취를 뿜는구나.(陰氣襲入惡臭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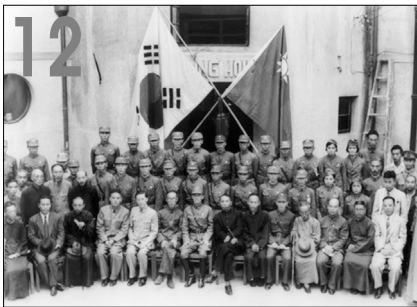
하루 두 끼가 한줌의 보리며(一日兩餐一菊麥)
일어서고 앉음이 호령 한마디에 달렸네.(起居動作依號令)
깊은 밤 찬 바람에 마루에 누웠는데(夜深寒氣臥板上)
가을이 늦어도 걸친 건 모시옷뿐.(菊秋之節尚麻衣)
옥리들의 소행이 우습기만 하나니(獄吏所行亦可笑)
입 벌리면 사람에게 욕이니 퍼붓네.(開口言所辱人家)
손 들어 하는 짓은 채찍질이 고작이니(舉手所作加鞭撻)
나하고 전삼생에 무슨 원한이 있단 말인가(與我無有三生怨)

2012 7*8

통권 64호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으려 합니다.



04 권두언
한일관계의 현실평가
| 김 자 동



08 특집-1
한국광복군의 창설과 중국 국민당정부
| 김 광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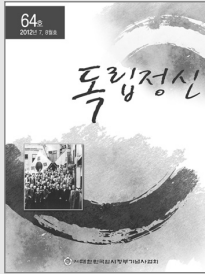
13 특집-2
중국공산당과 화북조선독립동맹 · 조선
의용군과의 관계
| 장 세 윤

20 종교 속의 독립운동사-1
일제강점기하 대중교의 항일 독립운동사
| 심 순 기

28 종교 속의 독립운동사-2
단애 윤세복의 민족학교 설립
| 조 준 희

36 우리고장의 독립운동 네번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예산지역 항일운동
| 정 재 봉

43 특별기고-1
우국지사 동농 김가진 선생 90주기를 추모하며
| 김 삼 응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명식, 신준수, 김지용, 이학노, 이일선, 김현모, 안효진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49 특별기고-2
원코리아페스티벌 27년을 돌아보며
| 김 희 정

56 청년학생이 간다
서대문형무소를 거쳐 간
애국지사들의 넋을 추모하며
| 정 혜 진

61 영화읽기
영화 <크로니클>에서 <엘리펀트>까지,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눈
| 이 두 희

65 100년 편지
정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한 사람
| 홍 소 연

69 임정서가
대통령이 들려주는 우리역사
노무현평전
| 편집부

72 독립정신 이모저모



한일관계의 현실평가



김 자 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1. 한일군사협정 반대

한·일 두 나라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논의하여온 두 나라 사이의 군사협정의 체결을 우리 국민의 주의를 피해가면서 사실상 이미 상당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5월 8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같은 날 일본의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도 “한국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성과를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하여 미 국방부 측은 한일군사협정체결을 알고는 있으나 이 문제가 미국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군방정책의 자문기관인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협력을 원했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제2차대전 후 시행된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극동에서의 미·일 및 한·미 군사동맹에 이어 한·일 군사동맹을 맺음으로써 3국의 반공동맹결성을 희망했던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군사동맹의 체결에 앞서서 한·일 국교정상화를 희망했으며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1965년의 한·일협정이 맺어졌던 것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위수령을 발동하여 군인들이 대학교에까지 들어가는 만행을 저지르면

서 이른바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의 희망은 나아가서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여 3국 사이의 군사 3각동맹을 완성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때의 사정으로 보아 한일군사협정을 당장 밀어 붙이기는 국민의 반대가 거셀 것이 두려워 미뤄오다가 결국은 성사를 못시킨 것이다. 이제 '뺏속까지' 친미이며 친일인 이명박 현 정권은 그들이 우러러보는 두 강대국과의 군사협정을 재임 중에 끝맺고 싶은 심정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완전한 군사동맹을 맺기에 앞서 이른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두 나라 국방부와 방위청 사이의 각서교환 형식으로 실현하려고 꾀를 부리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한·일 두 나라의 국방당국자들이 5월 8일 이 두 군사협정의 체결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발표가 있는 지 3일 후인 11일에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와 「한일협정 재협상 국민행동」두 단체는 한일 군사야합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참가단체와 개인들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어 회의 장소에서 광화문 4거리 이순신장군상 앞까지 항의행진도 가졌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에서 국회를 거치지 않는 협정체결에 반대하는 여론이 등장하자 지난 5월 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대표에게 “한·일군사협정체결은 국회논의를 거친 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4일 후인 21일 국방부 대변인이 분명히 두 협정을 포기하지는 않았음을 밝혔다.

일본은 우리국토의 일부를 자신의 영토로 만들고자 넘보고 있는 우리의 적국이다. 적국과 군사동맹을 맺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반민족행위이며 그들의 '국가관'이 의심스럽다.

한·미군사동맹과 미·일동맹은 모두 냉전의 산물이다. 냉전시대에 이른바 소련의 '팽창정책'을 억제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이제 냉전도 끝난 마당에 한·미·일의 군사동맹을 넓히는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에서 중국이 군사 및 경제적 대국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봉쇄'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적어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이다.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실리를 보아도 우리에게 손해만 오는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65년의 한일기본조약체결 당시에 해결했어야 하는데 결국 일본의 억지에 끌려 그냥 덮어버린 것이다. 지금도 특히 현 정부와 여당에는 일본을 우러러보고 심지어 식민통치를 미화하는 세력이 있다. 지난 4월의 총선에서 여당의 공천을 받은 하태경 같은 사람은 엄연히 우리의 국토인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몰고 가려는 일본의 음모에 공공연히 가담하고 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5월 30일 일본 방위청이 지난 4월 13일에 있었던 북한의 로켓발

사를 탐지하지 못하는데 관하여 검증팀을 설치했음을 보도했다. 그리고 이 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추가 발사가 예상되면 '발사지점의 주변해역'에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배치하기로 검토를 끝냈고 이미 방위상의 승인을 받았으며 총리실과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감시를 빙자하여 한국과 중국의 중간해역에까지 군함을 파견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적어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공식적인 '우려' 표명정도의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일군사협정은 결코 추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II. 한일기본조약 재협상 필요

지난 5월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인 이병목 씨(89) 등 9명이 일본의 전범기업들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 상고심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남아있다”며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재판소의 판결을 뒤집었다.

위의 두 회사는 현재도 한국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처지이므로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될 경우 이들이 국내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앞으로 징용 이외의 다른 일제강점하의 피해자들도 일본정부 혹은 기업들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도 볼 수 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미국의 눈치도 보며 무엇보다도 당장 5억 달러(무상 3억, 차관 2억)를 얻어 쓰는 대가로 일제의 한국병탄 및 강제점령통치의 불법성을 거저 넘기고, 독도 영유권 문제도 덮어두고 문화재의 일부 송환으로 오히려 그 많은 강탈당한 문화재의 일본인 소유를 합법화시켰다. 그 외에 이른바 '위안부'도 배상은커녕 일본은 그런 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있다. 병탄에 앞서서 행했던 의병에 대한 학살, 기미년에 있었던 평화적 항의에 대한 잔학한 탄압과 학살, 만주항일독립군을 공격하면서 행한 간도지역의 농민에 대한 학살(경신참변)과 관동대지진 때 있었던 일본 거류 교민에 대한 학살 등 모든 일본의 범죄와 한인의 피해 등에 대하여 65년의 한일협정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고 넘어갔다. 그리고 징용 외에 징병과

학도병 등 징집 혹은 강요에 의하여 일본군에 끌려간 수많은 희생자에 대하여도 마땅히 개인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재일교포의 법적지위문제, 사할린 미귀환 동포문제 등 일본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허다하다. 1945년 8월 24일 한국인 피징용 노동자를 태우고 귀국하던 일본 군함 우키시마호가 일본 근해에서 폭발로 침몰했다. 유해 524구만 건져낸 일본 측은 희생자와 실종자의 유족들의 진상조사요청을 끝낸 외면하고 폭발은 미군이 설치한 기뢰 때문으로 발표했으나, 일본인 해군 승무원이 폭발 전 전부 하선한 점으로 보아 일본해군의 자작극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하여 일본의 최고 재판소는 일본정부가 희생자들에 대한 어떠한 배상이나 사과의무가 없다고 확정판결을 냈다.

이 모든 문제는 65년 당시의 한일협정에서 일본이 과거의 범죄를 시인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배상에 관한 적절한 배상의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에 집권할 정부에서는 이 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그 부대협정들을 재협상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금년 말에 있을 대선에서 입후보자들을 이를 공약으로 명시하기를 희망한다. 일본과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65년의 조약을 폐기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한·일 관계는 결코 정상적이 아니며 우리의 항일운동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일본과 군사동맹까지 꿈꾸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이야말로 민족반역을 획책하는 부류인 것이다. 

한국광복군의 창설과 중국 국민당정부



김 광 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1. 대일연합전선과 한중관계

주지하다시피, 일제의 한국강점 이후 한인들은 중국으로 망명하여 중국 조야의 지원하에 지속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태평양전쟁 이전까지 국제사회에서 한국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 나라는 중국이 거의 유일하였다. 특히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 국민당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 등 한국독립운동에 대해 공공연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시정부는 그 지원을 받아 중경(重慶)에 안착하여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당시 한중관계의 큰 흐름이 분명히 한중연합전선에 의한 공동항일투쟁을 전개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 혹 시기에 따라서 크고 작은 오해나 마찰,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의 창설이 임시정부의 국권 회복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던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광복군의 창설 과정에서 중국 국민당정부의 지원과 협조도 결코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복군 창설 과정과 그 후의 운영에서 중국 국민당정부가 보여준 것은 협력과 원조 뿐만 아니라 방관, 견제와 갈등이라는 측면도 적지 않았고 국민당정부 내에서도 당 조직, 군사위원회와 같은 군계통의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정책이 전쟁 수행에 차질을 줄 정도로 불일치를 보이는 등 중국 국민당정부의 대한 정책은 매우 다양한 편차를 보여주었다. 한중 양측은 공동 대일항전이라는 거시적인 대의명분에서는 일치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노선에서 적지 않은 차이점을 노정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2. 광복군 창설 과정에서의 중국측의 지원과 견제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의 전시수도 중경에서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창설되었다. 한국광복군이 일본군의 공습이 한창이던 중경에서 창군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하였으며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1919년 4월 한국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면서 수립된 임시정부가 당초부터 일본에 대한 대규모 정규전의 전개를 지상목표로 설정하고 활동하였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임시정부는 출범하면서 독립운동 방략으로서 외교, 교육, 문화 등과 함께 무엇보다 특히 군사활동을 중시하고 독립전쟁론의 실천적 군사계획을 위하여 군사조직법을 공포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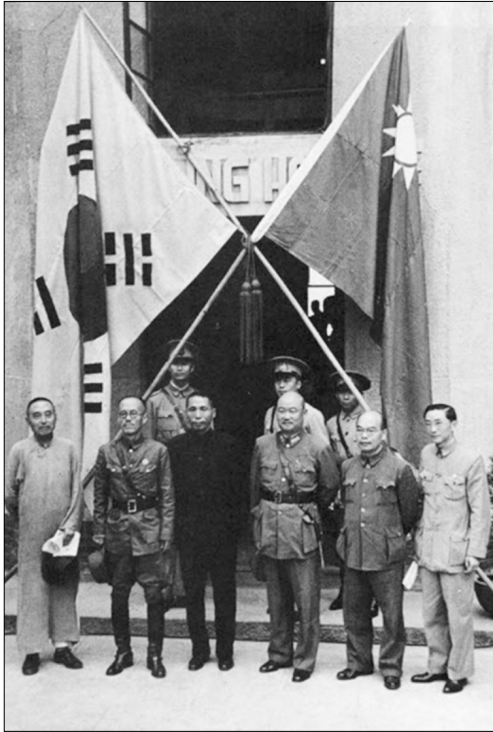
하지만 임시정부와 국내를 이어주던 교통국과 연통제의 파괴, 국민대표회의에 의한 민족운동진영내의 갈등으로 임시정부는 침체에 빠져들었다. 1932년의 윤봉길의거가 임시정부를 회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집요한 탄압으로 피난길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후 중일전쟁의 발발 등 국내외 정세가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임시정부는 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군사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임시정부는 중경에 도착하기 1년쯤 전인 1939년 11월 서안(西安)에 군사특파단을 파견하여 병력을 모집하는 한편, 군대조직에 대한 양해와 재정지원 약속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국민당정부와 교섭하였다. 중국안에서 군대를 편성하려면 중국 국민당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했고, 또 중국 국민당정부측에 원조를 의뢰할 필요도 있었다.

광복군 창설을 준비하고 있던 김구(金九)는 중국 국민당정부의 한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광복군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김구는 화북(華北)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에서 탈출한 한적사병(韓籍士兵)들을 활용할 경우 중국의 항일전에도 유익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 인사들에게도 상당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마침 중국 국민당정부도 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던 상황이었다. 1939년부터 국민당정부가 반공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국공양당의 통일전선이 붕괴되고 있었다. 또 1938년 11월 이후 중일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지구전화하고 있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일본의 화평공작이 진행되었으며 국민당정부의 항전의지도 동요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하여 중국정부는 한국, 대만 등의 반일투쟁세력과 결합하여 반일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항전의지를 고취하고자 하였다. 대일전선에 한국인, 대만인 등을 동원한다는 장개석(蔣介石)의 구상은 당시 임시정부에서 제기한 광복군의 창설계획 및 총동원방략과 서로 통하는 것이었다.

주가화(朱家驊), 서은중(徐恩曾) 등 국민당정부의 한국담당자들은 광복군의 조직을 원조하는 것이 자국의 항일전쟁에도 유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장개석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하지



▲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기념사진

만 중국측의 지원과 원조는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중국측의 지원에 대해 임시정부의 김구는 자신이 광복군 조직을 위하여 미국에 가겠다는 격동책을 중국정부에 구사하였다. 그 결과 1940년 5월 중국측의 요청으로 김구는 광복군 편성에 대한 계획서를 중국측에 제출하였으며 장개석의 승인을 얻게 되었다. 김구가 제출한 계획서의 핵심은 광복군을 편성하여 한중연합군으로 중국군과 함께 대일항전을 전개한다는 것으로, 광복군 편성의 인준과 이에 필요한 재정적 원조를 요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에 대한 준비는 다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또다른 장애물이 나타났다. 중국군사위원회에서 광복군 창설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광복군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담당하게 될 중국군사위원회는 새로이 조직되는 광복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예속하려는 의도하에 이를 최대한 견제하고자 하였다.

중국측의 예속 의도를 거부한 임시정부는 중국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힘으로 광복군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김구는 한국광복군창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작업은 박찬익(朴贊翊), 이청천(李靑天) 등이 맡았다. 중국측이 창설에 대한 승인이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우선 광복군을 조직해 놓고 중국측의 승인과 원조는 나중에 교섭한다는 방침이었다.

임시정부가 자력으로 광복군 창설을 추진할 수 있었던 데는 특히 미주교포들의 재정적인 후원이 큰 힘이 되었다. 광복군 편성을 추진하면서 임시정부에서는 미주교포들에게 광복군 조직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의도는 미주교포들에게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미주의 『신한민보』는 “광복군 조직은 3·1운동 이후 처음 있는 큰 사건”이라고 하면서, “힘이 있으면 힘을, 돈이 있으면 돈을 내라”며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당시 미주한인사회의 광복군에 대한 기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자력에 의한 광복군 건립을 결정한 후 우선 중경에 있는 독립군 간부 출신들을 중심으로 지휘부

인 총사령부를 구성하고, 하부조직은 병력이 확보되는 대로 편제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당시 중경에는 병력이 될 만한 인적자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상층조직인 총사령부를 먼저 구성하게 되었는데, 1940년 8월 4일 총사령 이청천, 참모장 이범석(李範奭)을 중심으로 한 총사령부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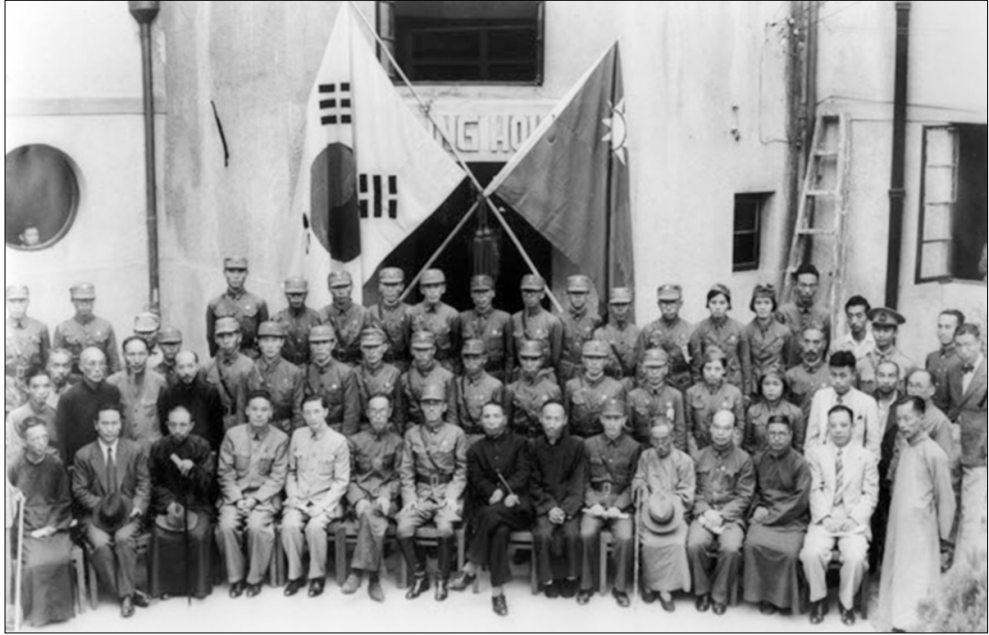
총사령부가 구성되고 부대편성에 대한 방침이 수립된 후, 김구는 광복군 창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1940년 9월 15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겸 한국광복군창설위원회 위원장 김구' 명의로 「한국광복군선언문」을 발표하여 광복군 창설을 내외에 공포하였다. 이 선언에서 임시정부는 독자적이고 자주권을 가진 광복군을 창설하겠다는 의지와 광복군의 성격과 위상이 연합군임을 천명하였다.

광복군 창설을 공포한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7일 중경의 가릉빈관(嘉陵賓館)에서 광복군총사령부성립식을 개최하였다. 가릉빈관은 중경시를 끼고 흐르는 가릉강 기슭에 위치한 호텔로 연합국의 중경주재 서방 기자들이 주재하고 있던 호텔이었다. 여기에는 광복군 총사령부 직원을 비롯하여 임시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중국의 여러 인사들과 중경에 와 있던 각국 외교사절, 각 신문사 대표들도 초청되었다. 임시정부는 이곳에서 성황리에 성립식을 거행함으로써 광복군 창설과 임시정부가 건재함을 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3. 광복군에 대한 9개준승의 적용과 철폐

성황리에 성립식을 마친 광복군의 앞날은 험난했다. 그것은 '한국광복군행동9개준승(韓國光復軍行動9個準繩)'으로 대변되는 중국군사위원회의 간섭 때문이었다. 광복군은 창설 후 중국 국민당정부의 정책에 의해 임시정부에서 분리되어 중국군에 예속되고 말았다. 지휘권뿐만 아니라 인사, 정훈 등 모든 방면에서 중국군의 견제가 가해졌다. 특히 중국의 삼민주의(三民主義) 강요는 민족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중국정부는 갓 성립된 한국광복군에 대한 원조의 대가로 한국광복군이 중국영토뿐만 아니라 한국본토에 진공했을 때에도 중국군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지극히 굴욕적인 요구사항을 강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는 임시정부 및 광복군 대원들에게 중국의 삼민주의를 강요하였다. 즉 한국인들을 중국의 아류로 만들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며 배타적인 중화주의 색채가 짙었다. 중국측의 강요에 대해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은 엄중하게 항의하였지만 중국측은 오히려 한국측이 "조금도 말을 듣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헛쓰고 있는 것이 아니오"라고 반문하였다고 한다.


때문에 전민족의 대표를 자임하는 임시정부로서는 광복군의 통수권을 찾아오는데 사활을 걸지



▲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과 중국 국민당정부 기념사진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나 광복군 지도층은 국민당정부의 중화주의적이고도 대국주의적인 태도에 심한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그에 대한 반발로 임시정부 요인들의 민족의식은 오히려 더 강화되어 갔다.

임시정부와 광복군도 기존의 중국 일변도에서 국제관계의 다변화를 시도하였다. 중국 측의 고압적인 태도에 실망한 임시정부 인사들은 태평양전쟁 이후 한국의 장래와 관련하여 태평양의 섬들을 점령하면서 북상하고 있는 미국의 지원이나 관계를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승만에게 보내는 김구의 편지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즉 김구는 중국 측의 원조가 생활비에도 못미친다고 하면서 장래에도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도움을 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획득을 강조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의 임시정부나 광복군의 노선이나 정책은 중국측과의 관계에서는 현상을 유지하고 대신 미국측에 대한 의존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1945년 5월 1일 중국정부가 광복군을 견제하기 위해 광복군에 강요했던 9개준승이 오랜 기간의 협상을 거쳐 폐기되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었다. 임시정부와 광복군은 9개준승이라는 사슬을 풀기 위해 노력하였고 1945년 5월 1일에 가서야 광복군에 대한 통수권을 넘겨받고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임시정부의 자주성과 국제적 위상은 높아져 갔다. 요컨대 광복군 창설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 국민당정부의 정책은 승인, 지원과 동시에 견제와 예속이라는 측면도 공존하고 있었음도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이다. 



중국공산당과 화북조선독립동맹 · 조선의용군과의 관계



장 세 윤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1. 머리말

최근 중국과 한국에서 한중관계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각 부문에서 적지 않은 미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한중관계사’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한중관계사는 한국과 중국이란 양 국가와 민족, 문화·지역적 개념을 망라한 포괄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데, 근래 주목되는 한중관계사 개설서를 쓴 김한규는 ‘한국’이라는 역사공동체와 ‘중국’이라는 역사공동체가 서로 관계한 역사로 정의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¹⁾

근현대 한중관계사에서 20세기 전반기는 매우 특이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거의 반식민지 상태로 두 개의 정권이 존재했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중국 국민정부와 중국공산당 정권은 중국 관내(關內)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인(韓人) 독립운동 세력에 적지 않은 지원을 했으며, 다른 열강보다 먼저 한국의 독립과 미래 문제에 관해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20-40년대에 중국공산당(이하 경우에 따라 중공당으로 약칭) 주도세력(당·정·군)이 한인 독립운동 세력인 화북조선독립동맹(華北朝鮮獨立同盟) 및 조선의용군과 어떤 관계에 있었고 어떻게 지원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의 한중

1) 김한규, 『한중관계사』1, 아르케, 1999, 15쪽. 물론 ‘한국’과 ‘중국’의 개념이나 정의 자체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관계는 물론, 한국현대사 이해와 현재와 미래의 한중관계 조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2. 화북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의 성립과 중국공산당의 지원

중국공산당의 태동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상해(上海)에는 일찍부터 다수의 한인들이 망명하여 각종 민족운동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수 인사들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을 수용하고 1921년 상해에서 창건된 중공당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였다. 그리하여 1927년 9월경에는 구연흠(具然欽)을 지부장으로 하는 중공당 한인지부가 결성되기에 이른다. 또 중공당 산하 민족위원회 조직에도 일부 한인들이 참여하여 반제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²⁾ 물론 이 조직 외에도 개별적으로 중공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일본제국주의 타도와 사회혁명 완수라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 한국·중국·일본·대만·인도 등 동방(東方) 피압박약소민족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보았다.³⁾

한편 일국일당(一國一黨)의 원칙에 따라 중국공산당에 입당했던 한인 공산주의자 가운데 일부가 중공당의 대장정에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끝까지 생존한 사람은 무정(武亭) 등 10여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중일전쟁의 격화 이후 중공당이 근거지를 구축하고 있던 중국서북의 연안(延安) 일대에는 새로운 청년 공산주의자들이 집결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중공당이 세운 항일군정대학이나 중앙당 학교에서 배운 뒤, 팔로군(八路軍)과 신사군(新四軍) 등 중공군에 배치되어 군사활동에 종사하거나 각급 당기관 또는 대중단체에서 활동했다. 약 40여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은 ‘중국혁명’의 참가에 의해 자연스럽게 식민지 ‘조선’의 해방이 달성될 것으로 믿었다.⁴⁾ 그러나 중일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한민족의 해방을 위해 직접 독자적 조직체를 결성하여 투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 중국국민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최창익(崔昌益)·허정숙(許貞淑) 등 18명은 김원봉(金元鳳) 등과의 견해차이로 그들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던 ‘조선청년전위동맹(朝鮮青年前衛同盟)’을 탈퇴하고 연안으로 북상하였다.⁵⁾ 이들의 이동은 항일투쟁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되던 화북(華北) 한인사회의 형성, 중국 남방보다 한국에 가까운 지리적 여건, 그리고 중공당의 적극적 항일 표방 정책 등에 크게 고무되었다.

이들을 바탕으로 1939년경에는 중국공산당의 본거지인 연안(延安)에서 ‘조선청년당(朝鮮青年黨)’이 결성되었다. 이 조직의 중심인물인 무정과 최창익 등은 이듬해 5월 팔로군 부사령관 팽덕회(彭德懷)

2) 김희곤, 「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 단체연구」, 지식산업사, 1995, 287~291쪽.

3) 위의 책, 294쪽.

4) 한홍구, 「화북조선독립동맹의 조직과 활동」,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9쪽.

5) 추현수 편, 『자료 한국독립운동』 제2권, 1972, 79쪽.



▲ 호가장전투에서 희생된 전우들 묘소에서 작별인사를 나누는 조선의용대원들

와 협의하여 보다 광범위한 한인 민족운동 세력을 망라하려는 ‘화북조선청년연합회’의 결성을 구상하였다. 이 때 중공당과 조선청년당 사이에는 14개의 합작조건이 교환되었다. 이 조건을 보면 한인들이 중공당의 지원을 받으려 하면서도 일정한 독자성을 유지하려 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중공당은 종전후 한국에 대하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

중공당의 지원에 힘입어 1941년 1월 창립된 화북조선청년연합회는 조선의용대가 북상하고 화북 각지에서 한인청년들이 점차 결집되는 등 역량이 커지고 활동범위가 넓어지자 조직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리하여 1942년 7월 이 조직은 화북조선독립동맹으로 개편되었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도 독립동맹의 산하무력인 조선의용군으로 확대 발전하였다.⁷⁾ 따라서 1940년대 중공당의 한인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은 바로 이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중국동북에서 중공당 만주조직의 영도를 받으며 활동하던 동북항일연군내 한인 투쟁세력은 일제의 토벌로 1940년대 초를 고비로 거의 쇠퇴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국민정부와 연계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세력이 상당한 재정적 군사적 원조를 받는 대신 그에 상응한 제약을 받았던 것에 비해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은 물질적 지원을 별로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중공당 정권 자체가 척박한 중국서북부 산악지대에 자리잡고 있는 지방정권에 불과했고, 중국국민당 정권과 일본군의 이중 압박을 받는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

6) 鐸木昌之, 「잊혀진 공산주의자들 - 화북조선독립동맹을 중심으로-」, 『항전별곡』, 이정식·한홍구 엮음, 거름, 1980, 72쪽.
7) 한홍구, 앞의 논문, 12~13쪽.

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선언이나 강령, 또는 문서상의 자료를 보면 중공당 정권에서 훨씬 더 한인 독립운동에 우호적이고 실질적 지원정책을 수립했으며, 그에 상응하는 민주적 지원을 구상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공당 세력하의 각 해방구(解放區) 민주정부에서는 한민족 독립운동의 원조를 내세우는 일련의 정책을 수립했던 사례가 있다. 즉 1941년 7월 말 진기로예(晉冀魯豫：山西·河北·山東·河南省) 변구 임시참의회는 한인(韓人) 등 ‘외국혁명인사를 보호 우대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11월 초에는 ‘우대 조선인민 규정’을 제정하여 반포하였다.⁸⁾ 또 이듬해에 진기로예 변구정부는 ‘조선혁명사업을 원조할 데 관한 결정’을 제정하여 조선의용대 등의 활동을 돕기로 했다.⁹⁾ 한편 진(晉：山西省) 서북행서(西北行署)는 1943년 3월 하순 ‘협조 조선교민(朝鮮僑民) 항일십항판법(抗日十項辦法)’을 공포하였고, 노성(魯省：山東省) 임시참의회 전공회(戰工會)는 ‘우대 조선인민 조례(條例)’를 1943년 5월 초순 반포하여¹⁰⁾ 화북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과 한인 세력을 포섭·지원하려 하였다.

위의 법규 가운데는 한인 교포나 독립운동가들에게 파격적 우대조건을 명시한 것이 적지 않았다. 또 위의 제안들은 구호로 그쳤던 것이 아니었으니, 실제로 중공당의 근거지 건설 과정에서 무정파 조일봉 등이 1941년 1월 섬감녕(陝甘寧：陝西·甘肅·寧夏省) 변구정부에, 그리고 박효삼(朴孝三)이 이듬해 9월 진기로예 변구정부의 참의원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한인 문제나 독립운동 지원방안이 의안으로 제기되어 성안된 사례가 있었다.¹¹⁾ 이밖에 중공당에서는 산하의 각종 교육기관에 한인 청년들을 입학시켜 독립운동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상당한 지원을 하기도 했다.

3. 중국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解放日報)』 보도를 통한 화북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 활동 지원

중국공산당의 기관지인 『解放日報』에는 조선독립동맹은 물론 그 전신인 화북조선청년연합회와 동방각민족 반파쇼대회, 조선의용군, 조선혁명청년학교(군정학교)와 한중연합문제 등에 관한 기사가 다수 실려 있다. 위의 단체들에 관해 개별기사로 보도한 경우는 약 120여 회로 파악된다. 이는

8) 楊昭全 編, 「關內地區 朝鮮人 反日獨立運動資料彙編」下,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1987, 1,428~1,429쪽.

9) 조선의용군발자취 집필조, 「중국의 광활한 대지 위에서」, 연갈: 연변인민출판사, 1987, 660~662쪽.

10) 楊昭全 編, 앞의 책, 1431~1432쪽.

11) 최홍빈, 「중국공산당과 한민족 독립운동 관계연구」, 『해방 50주년, 세계속의 한국학』 1995년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심포지움 발표문, 119쪽; 장세운, 「해방일보에 보도된 화북조선독립동맹의 활동」, 『이공법교수 퇴임기념논총』, 지식산업사, 1993, 744쪽.



거의 2주일에 한번씩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보도한 셈이다. 단독 기사로 보도하지 않고 다른 기사에 실려있는 관련기사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독립동맹에 관해 보도하고 있는 기사는 다른 단체보다 많은 33회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독립동맹이 중국 화북(華北)지방에서 활약하고 있던 항일명망가를 대표하는 운동세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 가운데는 독립동맹의 지부활동을 보도한 기사가 많다. 조선의용군 관련기사는 독립동맹 다음으로 자주보도되었다. 27회를 헤아릴수 있다.

위의 보도기사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독립동맹이 중국공산당, 특히 모택동(毛澤東)의 노선을 수용하고 그것을 추종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기사이다. 1944년 1월 28일자¹²⁾와 1945년 5월 11일자,¹²⁾ 같은 해 7월 23일자 기사¹³⁾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해방일보의 보도는 일면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당시 독립동맹의 해방 이후 국가건설에 대한 구상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1945년 8월 해방 직후 독립동맹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신민당은 모택동의 론리와 유사한 ‘신민주주의론’을 국가 건설론으로 내세웠던 것이다.¹⁴⁾

한편 조선의용군에 관한 기사 가운데는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의용군 대원들에 대한 저명 중국 인사들의 추도기사가 많이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 주목되는 것으로는 팔로군 사령관 주덕(朱德)이 직접 쓴 추도문이 있다는 점이다. 의용군 기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1945년 8월 12일 해방 며칠을 앞두고 보도된 기사이다. 그것은 총사령관 주덕 명의로 8월 11일보낸 명령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및 조선경내에 진군하여 싸우는 소련 홍군(紅軍)에 배합하고 조선 인민을 해방하기 위하여 나는 명령한다 : 지금 화북(華北)에서 대일작전을 벌이고 있는 조선의용대 사령 무정(武亭), 부사령 박효삼(朴孝三)·박일우(朴日禹)는 즉시 소속부대를 통솔하여 팔로군 및 원(原)동북군 부대와 함께 동북(만주 : 인용자)으로 출병하며 적과 괴뢰군(만주국군 : 인용자)를 소멸시키고, 아울러 동북의 조선인민을 조직하여 조선을 해방하는 임무를 완수할 것.”¹⁵⁾

12) 해방일보는 조선독립동맹에서 중국공산당 7차 대표대회에 축하서신을 보냈다고 보도하였다(앞의『중국의 광활한 대지 우에서』, 667~668쪽).

13) 해방일보는 1945년 7월 23일자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晉綏朝鮮獨立同盟(分盟)에서 偉大한 중국공산당이 창건된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쌓아올린 모든 귀중한 투쟁경험과 모택동 동지의 사상 및 혁명투쟁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를 각 지구 한인(韓人)들에게 내렸다.”(『중국의 광활한 대지 우에서』, 730쪽).

14) 백남운의 신민주주의론에 대해서는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2 참조.

15) 『중국의 광활한 대지 우에서』, 681쪽 ; 『關內地區朝鮮人反日獨立運動資料匯編』, 1,455쪽.



▲ 평북 유격구에서 <중한 두 민족은 연합하여 일본강도를 타도하자>라는 선전표어를 쓰고 있는 조선의용군 대원들

그러나 위와 같은 주덕(朱德)의 명령은 불과 나흘 뒤에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없었다. 우리는 위의 기사를 통해 해방 직전 조선의용군이 팔로군의 지휘체계에 편입되어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정치공작 및 심리전 등 특수작전에 투입되던 조선의용군이 직접 전투명령을 받고 있는 사실을 통해 조선의용군의 작전능력 향상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해방일보가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목적은 당시 중국공산당이 견지하고 있던 항일민족통일전선의 방침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항일전쟁과 반국민당 투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국내 소수민족 역량을 포용하려는 의도가 크게 반영된 것이었다. 즉 해방일보는 화북에서 일본제국주의 세력과 싸우고 있던 한인들의 활동을 보도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이 제기하고 있던 항일민족통일전선의 구체화를 선전하고, 그것을 통해 중국인 대중에게 항일전쟁 및 반국민당 투쟁을 고양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로 해방일보에 보도된 독립동맹·조선의용군 관련 기사는 중국공산당 지배지역에 널리 전파되었고, 이에 따라 한·중 양 민족의 연대의식이나 공동투쟁을 상당히 고무 추동하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중국공산당 세력이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등 한인 민족운동 세력을 지원한 배경에는 중국국민당정부와 마찬가지로 그들 나름대로의 정치적 목적이 개재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주은래



(周恩來) 등 중공당 주요 인사들의 경우 한반도 문제가 중국의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즉 한국을 독립시킴으로써 한반도 주변 열강의 세력균형에 의한 완충지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조선의용대의 참가자 또는 그 구성원들은 일부는 한국광복군으로 편입되었고, 또 다른 일부 세력은 중국 화북지방으로 북상하여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됨으로써 중국 관내의 핵심적 양대 무장세력—즉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군—의 인적 기반이 되었다. 이는 조선의용대의 조직화와 세력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조선의용대가 중국 관내(關內)지역 독립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한국현대사에도 적지 않은 족적을 남겼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용대(화북지대, 나아가 후일의 조선의용군)는 중국공산당 및 그 산하의 중국공산군과 함께 연대하여 투쟁하면서도 정작 중국공산당에 입당한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50여 명 내외라고 판단된다. 때문에 조선의용대와 거기에 참여한 구성원들을 일률적으로 좌파계열의 조직이나 인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핵심적 인물들이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¹⁶⁾

중국공산당은 조선의용군에게 무기를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지원하였지만, 중국 서북부의 지방 정권으로 존재하고 있는 열악한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다. 물론 선언이나 강령 등을 통해서만 꽤 우호적이며 민주적인 지원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용군은 중국공산당·군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공산당은 조선의용군이 병력규모 등 역량의 한계 때문에 실제로 일본군과의 전투를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때문에 그들은 조선의용군을 아끼고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적(對敵) 선전활동이나 심리전, 적정(敵情) 분석이나 심문 등 특수임무를 맡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조선의용군도 1941년 12월의 호가장(胡家庄)전투 등을 통해 용맹을 떨치기도 하였으나, 자신의 힘으로 대규모 전투를 수행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중국동북(만주)으로 진출하여 조선의용군 제1·35·지대로 확대·개편되면서 중국의 국공내전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고, 한국전쟁에도 일부 세력이 참여하게 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16)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지대장인 박효삼이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를 민족주의자로 평가·분류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한홍구, 「조선독립동맹의 활동과 조직에 대하여」, 249쪽 참조). 또한 필자는 최근 사진작가 유은규 씨를 통해 중국 연변에서 입수한 국내 미공개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관련 사진을 다수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해방 이후에도 태극기와 중국 국민정부의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를 사용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하 대종교의 항일 독립운동사



심 순 기
대종교 종리종사면찬위원회 간사

1. 을사늑약 이전의 대종교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제국이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인민의 나라로(당시는 국민이라 하지 않고 인민이라 칭하고 있었음) 만든다’는 생각 아래 탄생한 국호였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 탄생하여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에 강제로 병합당할 때까지 14년 간 존속했던 나라다. 처음 대한제국의 탄생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독립협회는 대한제국의 탄생 이후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바로 ‘입헌군주제’의 실현이었다.

당시로서는 현실적으로 입헌군주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 일본과 서양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가운데 독립협회의 이 같은 주장은 나라 흔들기에 불과할 뿐이었다. 더구나 이처럼 나라가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독립협회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은 일본인 찬양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를 강하게 펴면서 청나라로부터 독립시킨 일본에 대해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기사도 매번 게재했다.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는 대한제국의 제일공신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관점들은 일본인과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극도의 존경심을 갖도록 만들었고, 이는 당시 민족주의자들로 분류되는 이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러니 독립신문과 독립협회가 끼친 당시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 독립문/독립문은 독립협회가 주도하여 건립한 것이지만 우리가 아는 '독립'과는 다르다. 이는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독립시켜 준 것을 잊지말자"는 의미로 건립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일본이 하는 대부분의 행위들은 국민들에게 용납이 되곤 했다. 일본이 어업권을 가져가도 광산채굴권을 가져가고 인삼 위탁판매권을 가져가도 국민들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려는 행위'로 오인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은 러일전쟁을 치르는 과정과 그 이후부터였다.

러일전쟁 직후 독도를 자기 땅으로 편입하고 대한제국의 치안권마저 가져간 상황에서 일본은 이

제는 대놓고 '통감정치와 외교권박탈을 기본으로 하는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하고 나섰다.

대부분의 민족지도자들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이미 친일로 완벽하게 돌아선 관료들은 을사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섰다. 예상외로 많은 인사들이 찬성하는 가운데 을사늑약은 강제되었다.

2. 을사늑약과 대중교 증광

대중교의 홍암나철대중사는 을사늑약 강제 당시 일본에 있었다. 을사늑약 체결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본의 정부관료들을 설득 중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홍암대중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홍암대중사 역시 친일 인사의 성향을 띠고 있었다. 그는 일본의 지식층과 관료들이 '대동아 평화론'을 주장하는 신사로 알고 있었다. 이는 홍암대중사뿐만이 아니라 대한제국 대부분의 인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홍암대중사는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일본 관료들과 정치인들을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일본인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의 목적은 대동아평화가 아니라 대동아의 일본화였기 때문이다.

을사늑약이 결국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홍암대중사는 귀국하면서 사제폭탄 2개를 제작해 이

완용과 박제순에게 보냈지만 모두 실패한다.

이후 흥암대중사는 '을사오적 척결단'을 만들어 을사오적 암살에 나선다. 하지만 1907년 거사 일에 단원들의 부주의로 행동에 나선 척결단원 전원이 체포되고 거사는 실패했다.

그 뒤 흥암대중사는 민족지도자들과 거듭된 논의를 한 끝에 '단군교'를 중광한다. 중광의 의미는 "국가는 망할 수 있지만 민족의 도가 있으면 언제든 국가는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단군교의 중광은 많은 이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주시경 선생이다. 그는 배재학당과 상동교회 출신의 강한 기독교 신앙인이었다. 하지만 기독교를 믿는 것이 '서양으로부터 정신적 침략을 당한 것'이라는 전덕기 목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단군교로 개종한다.

대종교는 종로구 재동에서 중광을 하지만 한 달도 채 안 돼 2000명으로 신자가 늘어나면서 교당을 옮기게 된다. 당시 이처럼 정신적 침략과 민족성을 강조하는 게 사회적 분위기였던 것이다.

하지만 일제는 이러한 민족적 결합과 중흥을 원하지 않았다. 서서히 탄압의 고삐를 죄기 시작하자 흥암대중사는 고민 끝에 단군교의 교명을 대종교로 바꾼다. 이때가 1910년 초기 무렵이다. 단순한 일제로부터의 탄압을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세계 종교로의 성장을 위함이라는 명목도 밝혔다.

하지만 일제는 그러한 교명 변경은 개의치 않았다. 이미 대종교 자체가 일제의 대한제국 통치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제는 대종교 탄압에 들어간다. 모든 종교들을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대종교를 제외하고 불법종교단체로 간주하고 포교의 자유를 없앤 것이다.

대종교는 일제가 말하는 '불량선인단체' 였지 순수한 종교단체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기도 하다.

대종교는 결국 1912년 간도의 환인지역으로 총본사를 옮긴다. 그리고는 대한제국의 영토를 크게 네 등분하여 총본사를 중심으로 북도본사(처음엔 이상설 후엔 윤세복), 서도본사(처음엔 신규식 후



▲ 흥암 나철 대중사/흥암대중사는 을사늑약체결을 막지 못하자 을사오적 척결단을 조직해 활동했으며, 이후 대종교를 중광하여 강력한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독립운동세력을 양성했다. 사진은 흥암대중사가 순국직전 사리원에서 촬영한 것으로 아래 왼쪽 첫 번째가 김두봉, 그 옆이 흥암대중사다.



▲ 예관 신규식선생과 상해임시정부 건물/신규식선생은 서도본사의 책임자로 상해로 파견된 뒤 신해혁명에 참여하여 큰 성과를 거둔다. 이는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엔 이시영), 동보본사(서일), 남도본사(강호석)를 두었다. 이 중에 북도본사와 서도본사 동도본사는 간도지역을 구분한 것이며, 남도본사는 현재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지역이다.

3.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의 활약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대종교의 홍암나철대종사는 예관 신규식선생을 상해로 보낸다. 홍암대종사는 대종교의 교구를 네 개로 구분하였는데 상해를 서도본사의 중심지로 하고 그 책임자로 신규식선생을 파견한 것이다.

이 둘의 인연은 특이하게 형성돼 매우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예관(倪觀)이란 말은 ‘흘겨본다’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는 신규식 선생의 몸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규식 선생은 을사늑약 당시와 경술국치 당시 두 번 음독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바로 이웃에 살고 있던 홍암대종사에 의해 두 번 모두 구해진다.

경술국치 이후 두 번째 음독자살 실패 이후 홍암대종사는 신규식 선생을 서도본사의 책임을 맡겨 상해로 갈 것을 지시한다. 그러면서 여비 2만여 원을 마련해 준다. 당시의 화폐가치로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신규식 선생은 이 돈 중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손문에게 투자한다. 당시 상해에서는 남경의 거두

손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신규식 선생이 자신의 전직인 군대 장교로서의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한 게 바로 신해혁명이었다. 신규식의 활약은 대단한 것이어서 손문과 그의 새로운 정부에게는 큰 감명으로 남은 것이었다.

신해혁명 이후 신규식 선생은 함께 온 박찬익 선생과 중국 정부의 관료로 활약하면서 중국 인사와 한국 인사의 교류의 장인 신아동제사를 창설했다. 이미 한국 인사들의 모임인 동제사를 창설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박달학원도 건립해 놓은 덕분에 한국의 지도자들과 유능한 젊은 인재들은 상해에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젊은 인재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중국의 어느 학교에서든 맘 놓고 공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신규식 선생이 신해혁명에서 세운 공로로 인한 결과였다.

지도자들도 모여 있고, 중국 정부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은 것은 물론 어느 정도의 지원까지 받는 상황이니 상해임시정부가 탄생하여 자리를 잡을 수 있던 가장 큰 배경인 셈이다.

4. 간도에서의 독립운동

대종교는 총본사를 간도로 옮긴 이후 간도를 3개 교구로 구분했다. 그 중에 동도본사와 서도본사의 활약은 눈부시다. 서도본사의 이시영 등은 6형제 모두 독립운동에 투신한 것으로 더 유명하다. 이들은 대종교의 서도본사를 맡아 운영한 것은 물론 그 아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신흥무관학교는 말 그대로 강한 무장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로 군인을 양성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들은 강한 역사의식으로 더 무장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모두 동도본사의 주축인 서일의 북로군정서의 장교로 편제됐다. 청산리대첩은 이들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장교들과 북로군정서 사관양성소에서 육성된 군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을 더 강하게 결집시켰던 것은 북로군정서 자체가 대종교인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이보다 앞서 대종교에서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무장독립선언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1918년 12월 발표된 무오독립선언이다. 오늘날 '대한독립선언서'로 알려져 있는데, 모두 39명의 서명으로 발표됐다. 이중 대부분이 대종교 인사들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경술국치 이후 최초의 독립선언서이기도 하다. 이 무오독립선언서는 그대로 동경의 2·8독립선언으로 국내의 3·1독립선언으로 연결됐다.

3·1독립선언 이후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서일의 북로군정서는 임시정부 산하의 정부군으로 편제됐다. 대한민국 정부군으로 등록된 것이며, 최초의 국군인 셈이다. 청산리대첩은 대한민국 임시정

부가 일본과 당당하게 겨룬 전쟁인 것이다.

이처럼 커다란 전과를 올린 북로군정서는 다른 독립군단과 통합해 러시아 자유시로 집결하게 된다. 하지만 일제와 러시아공산군의 만행으로 독립군은 참살을 당하고 백포서일종사 역시 세상을 뜨고 만다. 이로써 독립군을 양성하는 기관조차도 사라진 셈이었다.

이후 김좌진은 신민부 활동으로 그 명맥을 이으려 했지만 그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이청천 등의 활약으로 독립군의 맥은 이어졌지만 1933년 대전자령 대첩 이후 전리품에 눈이 먼 중국군의 반발로 독립군의 활동은 미미해졌다.

5. 학교의 설립

대종교가 끊임없이 한 활동은 민족정신의 이음이다. 대종교는 그들이 머무는 곳 어디서나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대종교의 2대 도사교인 무원김현(김교현)종사는 무장항일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쳤지만 무엇보다도 민족교육에 앞장 선 분이다. 무원종사는 대종교에 봉교한 뒤부터는 집에서 청소년 학도들을 방과 후에 모아놓고 민족사 교육을 실시하는 열정을 보였다.

이처럼 당시 대종교에서 가장 크게 앞세운 것은 교육이었다. 대종교가 가는 곳에 학교를 세웠다. 상해의 박달학원 역시 같은 개념의 학교였던 것이다.

일본과 대규모 독립전쟁을 벌여 승리한 백포서일종사 역시 무장항일운동을 강조하면서도 학교를 세워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가 세운 학교만도 상당수에 이른다. 백포종사는 1911년 중광단을 조직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는 한편 명동학교·동일학교·청일학교 등 10여 개의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단애 윤세복종사는 1911년 만주 환인현으로 이주하자마자 바로 동창학교를 설립했다. 이후 백산학교·대흥학교·대종학원 등 수많은 학교들을 설립·운영하였다.

또한 신흥강습소에서 발전된 서로군정서의 신흥무관학교나 북로군정서의 사관연성소, 신민부의 배달학교 그리고 이 외의 무수한 소학교나 야간강습소 운영 등 역시 대종교가 얼마나 민족교육을 중시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라 하겠다.

1940년대에 대종교에서 설립한 ‘발해학교’는 아직도 건재하다. 현재 흑룡강성 목단강 영안현에 있는 발해학교는 학교 이름 그대로 발해의 상경성이 있던 곳이다. 이곳에서 대종교는 발해농장을 경영하면서 독립군자금을 모았고 학교를 통해 독립지도자들을 양성하려 했다. 하지만 조병현(만춘)이라는 매국노에 의해 그 꿈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아직도 대종교에서 세운 학교의 종은 울리고 있다.



▲ 백포서일대중사와 북로군정서/청산리대첩은 백포중사가 총재인 북로군정서가 이룬 쾌거다. 하지만 오늘날 이상하게 김좌진부대로 잘못 불리고 있다.

6. 국내에서의 독립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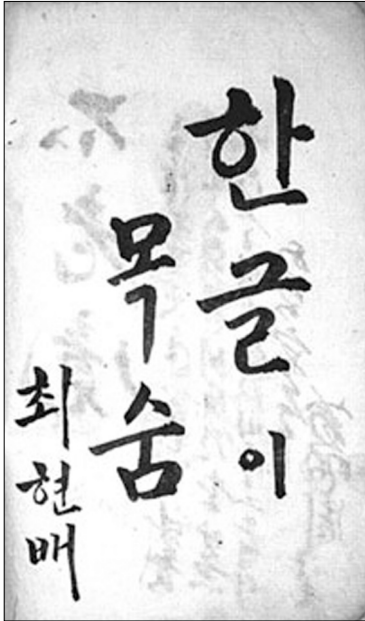
대종교는 국내에 남도본사를 두고 지하에서 활동을 독려했다. 하지만 1920년 대 활동을 보면 지상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대종교에서 공을 들인 부분이 바로 조선어학회 활동 즉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가꾸며 보급하는 일이었다.

조선어학회는 주시경 선생으로부터 비롯됐다. 주시경 선생은 대종교로 개종하면서 그가 가르치는 교육도 크게 바뀌었다. 예전의 주시경은 국어의 표현법에 대해서만 교육하는 수준이었지만 대종교로 개종한 뒤부터는 우리의 말과 글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치게 되었다.

주보파리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그는 가르치는 과목도 늘어 가장 먼저 우리의 역사문화를 그리고 지리를 가르쳤다. 제일 마지막에 가르친 것이 바로 우리의 말과 글이었던 것. 이는 외솔 최현배 선생께서 증언한 것이다.

주시경의 뒤를 이어 이윤재 한징 등은 1921년 조선어연구회를 다시 조직하였다. 이때 참여한 분들이 권덕규 장지영 신명균 김윤경 선생 등이었다. 1920년 대 후반에 와서 조선어연구회는 큰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한다. 일본에서 외솔 최현배선생이 돌아와 참여한 것이다.

더욱 큰 변화는 고루 이극로의 참여였다. 그는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빼어난 수재였다. 그는 박사학위 과정에 베를린 대학교에 조선어학과를 설치하여 직접 강의까지 한 진정한 독립투사이기도 했다.



▲ 한글은 목숨/외솔 최현배 선생이 1933년경 한 식당을 방문하여 남긴 글.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이처럼 우리 말과 글을 이용한 독립운동을 펼쳤다.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꾼 뒤 1933년에는 처음으로 한글맞춤법표준안도 만들어낸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우리말큰사전 편찬 작업이었다. 이를 담당한 것이 바로 외솔 최현배다. 진두지휘는 이극로가 했지만 말을 모으고 다듬는 것은 외솔이 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순탄치 않았다. 말모이 편찬 작업이 끝나고 정식 책을 출판하기 직전 바로 그 유명한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졌다.


조선어학회 회원이던 이인 변호사의 회고록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대종교 중광60년사에는 “일제가 한국의 사상을 완전 말살하기 위해 꾸민 것이 조선어학회 사건과 임오교변이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인의 회고록에도 그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

조선어학회 사건은 함흥의 영생여고 학생 중 하나가 기차 안에서 “우리말을 사용하다 선생님에게 혼났다”는 말을 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그 우리말이 일본말인지 조선말인지에 대해 한 국계 일본인 형사가 수사를 시작하면서 사건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확대가 아닌 당연한 것이었다. 조선어학회가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가르치려던 것은 민족정신의 발로였고,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독립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 단지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너무 교묘하게 사상투쟁을 했기에 일제는 수상하게 여기면서도 단서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대종교 역시 탄압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실질적인 증거가 없던 터에 조선어학회 사건은 좋은 구실이 됐다. 더구나 조병현(秉炫 혹은 만춘晩春, 당시 50세)의 밀고는 대종교가 순수한 종단이 아니라 독립운동단체라는 사실까지 확인시켜 준 셈이 됐다. 조병현은 조선총독부에서 파견한 간첩이었지만 대종교를 위해 헌신하는 순수한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이를 알아차릴만한 사람이 없었다.

대종교에서는 이를 임오교변이라 한다. 대종교의 간부들 중 대다수가 옥중에서 조천하였고, 대종교의 모든 자료들은 일제에 의해 압수돼 사라졌다.

대한민국 건국에 중추적인 역할과 독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정신적 구심체로서 오로지 민족과 민족정신만을 위해 노력해온 종단이 바로 대종교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바람의 전설’로만 기억하려 한다. 가슴 아픈 일이다. 

단애 윤세복의 민족학교 설립



조 준 희
국학인물연구소장



▲ 단애 윤세복(1881~1960)

윤세복(1881~1960)은 경남 밀양 출신의 독립운동가다. 그의 민족의식 형성에는 누구보다 대종교 초대 도사교 홍암 나철(1863~1916)(이하 홍암)의 영향이 지대했다. 윤세복은 홍암의 인도로 대종교에 입교한 뒤 한평생을 대종교에 헌신한 종교인이기도 하다. 또한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서간도에 학교와 교당, 독립운동기지를 일치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던 교육자다. 윤세복의 민족운동은 만주 지역에서 활약하는 지사들에게 큰 정신적 감화를 주었다. 그는 광복 후에도 홍익대 창립 등과 같이 종교지도자로서, 또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해 한국근현대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업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윤세복은 1881년 3월 29일 경남 밀양에서 윤희진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무송이며, 본명은 세린이다. 윤세복의 형은 윤세두(1868~1941)인데, 세용으로 개명하여 동생과 함께 만주에서 항일독립운동에 매진하였다. 윤세복의 민족운동 투신 배경은 딸 윤난악의 증언이 주목된다.

한말에 윤희황제께서 일본사절단을 거느리시고 남순하실 때 대구에 기착하셨는데, 종사께서 마침 가까이에서 본 즉 어전에서의 일본인들의 행동이 방약무인이요, 오만불손하므로 전신이 전율하여 분노를 억제하기 어려워 더 이상 보지 못하고 퇴장한 후로부터 일본인을 구수하게 되고 배일사상이 점차 굳어지다가 마침내 국과민망의 치욕을 당하자 대종교문으로 들어옴은 우선 참적구국의 대의를 실천하려 하시고, 또 제천보본의 천신대도를 증광하여 국혼족수를 환발하신 나홍암대종사를 숭배함이 그 원인의 하나요, 조국광복을 위한 동지규합이 그 목적의 하나라.

보수 전통이 뿌리 깊게 내려온 영남 지역에서 황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무례한 행태를 목격한 윤세복의 충격과 주체할 없는 감정은 그날 이후 일제강점에 대항하여 국권회복운동에 필요한 해결책을 찾는 데 이르게 했다. 마침내 1910년 음력 12월 홀로 서울 간동에 있는 대종교를 찾아가서 홍암을 만나 훈도를 받고 입교를 결심한다.

홍암은 이에 ‘단애’라는 호를 주고 ‘세복’으로 개명시켰다. 우국지사 윤세린에서 대종교인 윤세복으로 다시 태어난 그 날의 감회를 “홍암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참진리를 깨닫지 못한 일개 지사로 생을 마쳤으리라”고 술회했다. 윤세복은 1911년 음력 2월 29일 시교사에 임명되고서 서간도 시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막대한 가산을 정리하여 곧바로 망명길에 올랐다.

환인현에서 동창학교를 설립함

윤세복은 1911년 음력 2월 환인현 향도촌(향도천)에 망명해 5월 동창학교 설립에 성공하였다. 일제는 동창학교 설립 직후부터 학교 동향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예의 주시했다.

동창학교의 교원은 교주와 교장, 교사로 구분되었다. 동창학교를 거쳐 간 임직원은 총 12명이 확인된다. 박은식과 쌍벽을 이룬 국수주의 사가 신채호, 한국 불교의 현대화에 지평을 넓힌 윤허스님, 주시경의 제자 김영숙, 월북 국어학자 이극로 등 이름난 인사들이 이 학교의



▲ 동창학교 교사진-(좌측부터)단체 신채호, 단총 이시열(운허 스님), 백주 김영숙, 물불 이극로

교사진으로 활약했다.

동창학교 학생은 이주 동포의 자제들로서 연령은 6세 이상 15세 이하로 제한되고 3개 반으로 운영되었다. 검은색 제복에 교모를 착용했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숙사비와 피복비, 가족생계비를 보조하면서 교육을 장려했다. 교과는 '단군'을 민족사의 정통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역사·국어·한문·지리 등을 가르쳤다. 역사와 국어 외에 특별히 체조가 강조되었는데, 이는 민족의식 고취와 더불어 대일군사훈련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대종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1911년 종교취체로 본격화되고, 동창학교의 활동도 줄곧 감시를 받았다. 1914년에 이르자 회유와 협박을 거듭하던 일본영사관은 중국관헌과 교섭해 학교폐지와 교사축출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동창학교는 강제 폐교되고 말았다.

무송현 백산학교에서 흥업단을 조직함

대종교는 계속되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국내에서 포교활동이 어렵게 되자 1914년 5월 13일에 총본사를 길림성 화룡현 청파호로 이전하였다. 흥업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총본사 산하에 동서남북 4도교구와 중국·일본·구미의 외도교구를 설치해 교단을 정비했다. 각 교구 주관자로 동도본사에 서일, 서도본사에 신규식과 이동녕, 북도본사에 이상설, 남도본사에 강우를 임명하였다.

1914년 서도교구 소속의 윤세복은 불굴의 투지로 민족 영산이 있는 백두산 인근 무송현으로 이주했다. 무송현 하북에 항일투사 김성규가 세운 백산학교가 있었는데, 본격적인 독립

군 양성과 훈련이 학교의 주목적이었다.

윤세복은 동지들과 몽강현·무송현·안도현에 20여 개의 학교를 더 설립했다. 또한 한·중 우호증진을 도모하여 서로 간에 교류도 활발히 하였다. 그리하여 개천절·어천절 등의 행사 때는 중국 경관이 출동하여 그들의 보호하에 한·중 국기를 게양하고 성대히 거행하였다. 그는 현지 동포와 자제들의 민족의식 고취와 독립정신을 가르치고, 1919년 7월에는 병·농 겸행의 자치단체인 '홍업단'을 조직해 한층 정비된 독립군의 위용을 갖춰 북로군정서의 자매 기관으로서 일제에 응수했다. 경남 의령 출신의 안희제는 무송에 송림병원을 개원하여 한·중 양국의 의료 기관이자 홍업단 통신소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왔다. 윤세복의 전략과 김호의 전술에 따라 교육이나 사업 외에 독립군 양성과 거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9년 11월에 조선총독부의 간촉을 받은 일본 낭인 나가노가 중국 마적 두목 장강호와 협의하고서 지뢰와 독가스 등 살상무기로써 무장하여 무송 등지의 독립운동가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교장 김성규가 동지들과 무기를 운수하던 중 1920년 6월 몽강현에서 장강호 부하들에게 피체되어 동년 8월에 총살되었고, 소지하고 있던 홍범도 및 윤세복 관계 비밀문서들이 압수되었다. 이미 백산학교의 대부분 교원이 일제의 누명을 쓰고 1915년부터 1년 반 동안 구금된 것에 이어서 1920년에 교장 이하 주요 임원진의 타계와 투옥으로 인해 백산학교의 교육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

밀산현 대흥학교에서 은거함

윤세복은 1922년 6월 5일에 서간도 관할 목적의 대종교 교구인 서일도본사 전리에 임명되고 6월 8일에 서일도본사를 설치하였다. 5년 간 무송, 안도, 화전, 반석 4현에 5곳의 교당을 신설하고 교인 7천여 명을 얻었다. 1924년 1월 22일에는 무원종사 김교현의 뒤를 이어 영안현 남관에서 제3세 도사교에 승임되고 종단을 영도하게 되었다.

1925년 6월 11일 재만 한국인 취체와 항일세력 축출 목적으로 중국 장작림 정권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미야마쓰 간에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고, 1926년 12월 장작상이 대종교포교금지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윤세복은 포교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총본사를 밀산현 당벽진으로 이전하기로 결의했다. 1928년 윤세복은 밀산에 대흥학교를 세우고서 고행수도에 임하며 교무는 현황 유지, 의례는 경절의식만을 거행하고 외부와 접촉을 끊고 은거생활을 하였다.

윤세복은 비밀리에 박찬익·윤복영·조성환을 통해 동북 정권에 해금청원서를 제출하는 교섭을 전개하였다. 1929년에서야 박찬익이 남경 중앙정부와 교섭을 벌여 포교금지령이 해제되었다. 그렇지만 1931년 만주사변 발발로 그 실효가 오래가지 못했다.

영안현에서 대종학원을 부활시킴

1933년 3월 15일 윤세복은 대종교 포교의 재기와 교세 확장을 위해 총본사를 밀산 평양진 신안촌에 임시 이전시키고 시교의 길을 떠났다. 1935년 12월 18일자 윤세복이 이극로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3년 간 새로운 교인이 5, 6천명, 교당이 20곳에 이르렀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다. 1937년 6월 30일자 재만 공식 대종교인 수는 16,164명이었다.

1936년 3월 10일에는 대종학원을 창설·개교하였는데, 동창·백산·대흥학교의 후신으로서 청년 남녀에게 국수와 민족혼을 환기하고 시대적 지식을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본래 ‘삼일학원’이라는 명칭으로 학교를 설립했으나, 일제는 ‘삼일’이 독립운동의 명사이므로 삼일학원을 배일사상 양성소로 판단해 학원 폐지령을 내렸다. 부득이 대종학원이라 개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헌병과 특무경찰을 동원하여 삼엄하게 감시하였다.

대종학원의 교육과정으로 초·중등부와 여자야학부가 병설되었는데, 초등부는 6개월 진급제로 하여 정규 과정 외에 시문과 종경을 교육하여 지원자가 매우 많아 20평 교실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고, 1938년 3월에 설치된 중등부는 특별과로서 속성 1년제로 운영되었다.

1942년 11월 일제의 대종교 박해 사건인 ‘임오교변’을 겪은 뒤, 윤세복은 1945년 7월 7일 총본사를 부활시키고서 8월 12일부터 본격적



▲ 대종학원(1940년 10월 3일)

인 교무를 집행하였다. 8월 26일에는 대종학원 내에 민족정신 환기와 국학 장려를 위하여 ‘한글강수회’를 설치하고 10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한글과 역사를 교육시키고자 했다. 10월 5일에는 대종학원 개강식을 거행했는데, 주간에는 중등과정을 속성으로 교육하고, 야간에는 초등과정을 여자강습생에게 학습케 하여 12월 2일에 중등반 제1회 수업식을 거행해 수료생 55명을 배출하였다.

서울에서 홍익대학을 설립함

1946년 2월 28일, 32년 만에 대종교 총본사가 서울로 환국하여 중구 저동 2가 7번지에 설치되었다. 8월 24일에는 총본사직원회의 결의에 따라 대종교의 교원과 교의를 널리 선포하기 위하여 정일(1907~1974)이 ‘대종교의 유래’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전국 방송을 시작한 이래 1950년까지 월 2, 3회씩 지속했고, 성세영이 1946년 12월부터 6년 간 총 71회에 걸쳐 대종교 사상을 주제로 방송을 내보냈다.

1947년 5월 대종교 원로들의 결의에 따라, 대종교 총본사에 재단법인 홍익학원 및 홍익대학 설립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는 동창학교부터 대종학원으로 이어지는 교맥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윤세복의 의지와 교육열이 담긴 것이기도 했다.

대종교의 대학 설립 추진 중에, 1946년 4월 양대연이 홍문관대학관을 미인가 상태로 운영하다가 1947년 5월에 이르러 학생과 교수들에게 정규 대학이 아님이 밝혀지자 자진 사퇴와 동시에 폐관한 사건이 있었다. 정규대학인줄 알고 수업을 받아온 학생들과 교수들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관무집행위원회를 조직, 최광언 교수 등이 총본사로 정열모를 찾아왔다. 당시 정열모는 종리연구실 찬수와 총본사 전리를 역임하여 대종교 교리와 교무 양쪽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었다. 윤세복은 폐교를 당하여 난감한 홍문관 학생들의 고민을 정열모한테 전해 듣고서,

우리 민족 장래를 생각할 때 청년 학도 한두 명이 가두에서 방황하여도 이를 구하여야 할 것인데 저의 수백명 학도가 난경에 처하여 있는 것을 좌시 방임한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더욱이 홍익 인간을 교지로 하는 대교인으로서는 안될 말이니 여하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를 구하도록 하라.

는 엄숙한 분부를 내렸다.



▲ 송암 이흥수(홍익대 초대 이사장, 대종교 6대 총선교)



▲ 삼강 정일(홍익대 교명 작명)

윤세복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던 항일투사이자 재력가 송암 이흥수(1896~1973)를 비롯하여 교우들의 찬조 의사와 정열모·정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학생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흥수는 초대 재단이사장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기부, 재단법인 홍익학원을 구성하였다. 1947년 7월 초 대종교 원로이자 임정 거목인 조완구가 창립 명예학장으로 추대되었고, 정열모가 초대학장, 정일이 초대 상무이사로 사무운영을 맡아 학사와 행정을 주관하였다.

교명은 '홍익', 건학이념은 대종교의 교의이기도 한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채택되었다. 홍익대의 건학이념은 대한민국 건국강령에도 담겨 있으며, 정열모가 작사한 것으로 알려진 「홍익대학교가」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때는 대종교가 환국하면서 민족정신의 대명사인 단군, 개천절, 단기, 배달민족, 홍익인간 개념을 널리 퍼 사회적 영향이 미쳤고, 미군정 하 1945년 12월 20일 개최된 제4차 조선교육심의회에서 '홍익'을 대한민국 교육이념으로 채택한 바 있는 상황이었다.

1947년 7월 재단법인 홍익학원 설립준비위원회가 가동되고, 홍문관 대학관생을 구제 편입과 동시에 홍익대의 편입 및 신입생을 모집, 1947년 9월 대종교 총본사 강당에서 홍익대학의 역사적인 첫 수업을 시작했다. 이흥수는 초대 재단이사장으로서 많은 재산을 헌성했다. 대종교인 안재홍이 미군정청 민정장관으로 취임하던 시기인 1948년 3월 1일에 이흥수와 정열모는 문교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8월 10일에 재단법인 홍익학원 및 홍익대학관 설립인가를 받았고, 1949년 6월 27일에

홍익대학 설립의 허가를 받았다.

1949년 7월 5일 백범 김구 장례 시 홍익대 측은 민족 사명을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운구를 맡겼다. 더 나아가 백범 사후 그가 운영하던 건국실천원양성소를 인수하고, 마포구 상수동으로 이전 후 대학 교정에 단군성전 건립을 추진하였다. 창학 동문들은 이러한 홍익대의 민족교육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국수주의적 교명인 동창학교, 성지 개념인 백산학교, 그리고 대흥학교·대종학원의 연장선상에서 홍익대학은 대중교의 보편적 진리와 정수를 담고 국학의 요람으로서 한걸음 도약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윤세복의 교육관은 대중교 신앙을 근간으로 한 민족 정신과 선열의 업적을 후진에게 전하고 양성하는 것에 있었다. 그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과 모든 삶을 바쳐 혼신

의 노력을 다했다. 1910년 대중교에 귀의하여 1960년에 타계할 때까지 그의 삶은 대중교 100년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북공정과 간도영유권 문제가 이슈에 오른 오늘의 현실에서, 배달국재건의 초석을 다지고 민족정신 고취에 앞장섰던 윤세복의 행적을 기려 그의 사상을 재조명하고 현대적으로 계승해야 할 시점이다.



▲ 홍익대 교가(故 이흥수 차남 이용석 제공)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예산지역 항일운동



정재봉
예산문화 편집기자
예산군 향토자원조사요원

우리고장 충남 예산은 역사적으로 걸출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 유서 깊은 그야말로 충절의 고장이다. 특히 우리민족의 항일운동사에서 큰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는 윤봉길 의사가 태어난 곳이고, 중국에 망명,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한 북만주 일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을 위해 활동하다 옥고를 치르고 광복 후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판공실장을 지냈던 일연 신현상 선생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어머니로 칭송받고 있는 수당 정정화 선생도 예산과 인연이 깊다. 이 밖에도 우리고장은 충남지역 최초로 3·1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예산읍내장터만세운동, 고덕한내장터만세운동 등을 중심으로 총 참여 인원이 5000여명이 넘는 대대적인 만세시위운동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지역에서 좌익성향이란 시각 때문에 값진 희생을 치르고도 명예회복이 안된 잊혀진 항일운동사가 있어 아쉽다.

그 첫 번째로 ‘예농독서회’ 항일학생운동 꼽을 수 있으며 두 번째로 ‘대흥만세시위’다. 예산지역의 항일운동사를 모두 열거하다 보면 너무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좌익성향의 항일운동 이유로 아직도 역사적으로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고장의 항일운동사를 재조명해 보았다.

1. 예농독서회 항일학생운동

국가보훈처가 펴낸 독립유공자 공훈록 정종호편에 이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실려 있다.

‘...강봉주·한정희 등과 비밀리에 독서회를 결성해 항일반제투쟁에 관한 서적 등을 운동·토론하는 등 민족정신 배양과 항일의식 고취를 위한 독서회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당시 유행하던 문맹퇴치운동과 문자보급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항일학생운동의 세력 확대에 앞장서기도 했다.<중략> 그러던 중 1932년 6월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무리한 동원령을 내린 것을 계기로 박희남·박정순·강봉주 등과 함께 동맹휴학을 결행하여 항일투쟁의 목표를 명백히 할 것을 합의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예산농업학교는 충남에서 유일한 5년제 갑종 농업학교로서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명문학교였고 각 지방 수재들만이 들어 올수 있는 학교였다.

1927년 예산의 지식인들은 항일사회운동 단체인 <신간회예산지회>를 창설하면서 청년, 여성, 노동, 농민, 형평(衡平), 사상운동 등을 조직적, 이념적으로 확립하고 왜경의 탄압을 받으며 활동했다. 이런 점은 예산농업학교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이해의 폭과 깊이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

1922년 예산농업학교가 공주에서 예산으로 이전한 후부터 농업학교에 필요한 부대시설 사업에 노동의 동원을 대부분 재학생들이 부담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실업학교(농업학교)에 대한 일제의 교육방침을 살펴보면,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는 “勤勞主義, 實際主義, 漸進主義”를 교육의 기본적인 시행방침으로 삼았다. 이런 방침들은 실업교육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1911년 8월에 발표된 조선교육령의 실업학교 교육방침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첫째, “성실, 신용, 근검은 실



▲ 예농독서회 회원들

업에 종사하는 이에게 특히 필요한 것이니 이는 교과목에 대하여서든지 늘 여기에 유의하여 가르침을 요한다”는 것, 둘째, “지식기능은 산업개량에 쓸만한 사항을 골라서 가르치고, 또 농업사정에 따라서 그 실제에 적절하게 하기를 요한다”는 것 등이다.

이런 교육정책이 예산농업학교(이하 예농)에 그대로 적용되어 학생들은 식민지실업교육의 근로봉공대상자로 취급됐다.

1930년대 예농의 교사는 양잠선생(李晟求)을 제외하고는 11명 모두가 일본인이었다. 또한 조선어 한문 지리 역사(일본역사) 법경(법경, 농경, 농법, 정부), 미술, 체조, 수신(국민윤리) 등은 교육과정 상의 정식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교사가 아예 없었다.

이처럼 식민지 노예교육을 일삼고 차별화된 교육정책은 차츰 조선학생불만과 현실개혁을 모색하는 비밀결사운동으로 발전한다.

재학생들은 비 오는 날에는 수업이 이루어졌으나 그 외 평일은 각종 노동력 동원, 혹사를 당하는 일이 많았다. 학생들은 삼과 팽이를 든 일꾼으로 면학을 희생당하는 등 불평과 불만이 항일사상으로 증폭되어 가고 있었다.

1930년 4월 이미 학교를 졸업한 김용재, 박정순, 박희남, 오일규, 김규환, 이종규 등과 수차례 회합하고 비밀결사조직인 독서회를 조직했다. 비밀결사조직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식을 길러야 한다’는 취지로 민족의식을 배양하고 반일반전의 항일사상을 고무하기 위해 독서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독서회 활동만을 한 것이 아니라 학교 측의 무리한 요구에 반대하는 투쟁, 그리고 친일연극의 상연을 반대하는 투쟁 등을 주도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밤이면 기숙사나 하숙집 방에 모여들어 함께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 책의 내용을 토론하고 각자 생각한 의견을 깊이 있게 이야기했다. 또한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과 장래를 서로 의논하여 보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며 헌신할 것을 서로 맹세했다. 아직 열 몇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수탈당하며 짓밟히고 있는 조국의 현실이 이들의 젊은 피를 들끓어 오르게 했다.

그러나 예농 자체의 특수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학내 학생들의 대중적 지지, 또는 지역 사회운동 단체들과의 연대 등을 확보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공주 영명학교를 다니다가 광주학생의거의 영향을 받아 동맹휴학을 주도하다 대학처분 받은 예산읍 신흥동 출신 김현창과 김용재를 비롯한 예농의 학생운동 조직원들과 밀접한 교류와 공동투쟁사업을 펼쳤다. 이들은 1932년 5월 1일 제주도 출신 강봉주와 예산 덕산 시량리 출신 정종호 등과 조직의 견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좌익협의회’라는 결사를 조직한다. 정종호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던 것은 그가 윤봉길 의사와 같은 동네에 살며 농촌부흥운동을 함께 펼쳤고 윤의사의 4.29상해의거가 일어나자 민족적 의협심이 다시 일어난 원인으로 크게 작용했다.

이 좌익협의회는 동맹휴학사건을 주동하였고 그 사건의 주모자인 박정순이 무기정학을, 오일규가 당시 퇴학을 받는 등 무더기 학사처분을 받고 일제와 학교의 감시 강화와 사건 후 곧이어 시작된 여름방학 등 상황이 제약되자 그 활동이 위축 저조하게 되었다. 동맹휴학은 대략 일주일 정도 진행되었으나 “경찰의 압력과 지방유지들의 권유”로 말미암아 곧바로 중단되었다. 오일규와 김규환이 퇴학당하자 결국 좌익협의회는 자연 해소되고 말았다.

‘예농독서회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농에는 3번의 동맹휴교사건이 있었다.

그 첫째가 1924년 3월 예농을 5년제 학교로 승격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교사, 학부형, 지역 유지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개한 맹휴사건이며 둘째는 1926년 6월 원예를 담당하

던 교두(교감)原口良策의 불성실한 수업에 항의하여 1,2학년 학생들이 주도한 맹휴사건 이고 셋째는 1930년 12월 1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이 사소한 충돌로 패싸움을 벌이자 학교 측이 몇 명의 학생들 제적함으로써 발생한 맹휴사건이다.

1932년 11월 16일 예산읍내에서 '만경좌' 라는 극단이 <동방의 빛>이라는 제목의 연극을 상연하였는데 그 내용은 "만주에 있는 조선인이 마적으로부터 극도의 박해를 받아 살해되려는 찰나에 일본군이 나타나 구원 보호해 준다"는 것이었다.

이 연극이 상연된 바로 다음날 성용하, 김현창, 이광성 이강오, 그리고 강봉주, 김만복, 윤수덕, 이동순 등은 예산시장 내에 있는 이강오의 집에 모여서 "<동방의 빛>은 쓸데없이 한국인의 친일사상을 조장하고 민족의식을 감멸시키려는 것으로써 우리들의 주의사상과 상반되는 것이므로 극단 측에 엄중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아 극단 간부와 만나 상연을 중지요구를 하자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경찰은 이 사건에 즉각 개입하여 강봉주 등 관련 인물 9명을 검거한 뒤 8명을 홍성검사국으로 송치했다.

검거된 학생들의 하숙방과 기숙사를 수색한 일경은 각종 사회과학서적과 서류를 압수하였으며, 심지어 주인 등 주변사람들 까지 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취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약 3개월간 경찰에 검거된 사건 관련자는 대략 30여명을 넘었다.

취조를 마친 일경은 이 사건의 명칭을 "예산농업학교 적색독서회사건" 명명한 뒤 1933년 2월 17일 관계자 12명을 공주지법 검사국 사상부로 송치하였다. 이때 송치된 사람은 한정희, 정중호, 김형래, 박배훈(이상 5년생), 박정순, 박희남, 이종규(이상 3년생), 김규환(3년 퇴학생), 오일규(3년 퇴학생), 김용재(1932년 졸업생), 임의재, 김기성 등이었다.

비록 좌익성향의 항일학생운동으로 역사 속에 잊혀졌지만 '예농독서회' 항일운동은 광주학생의거와 그 의미를 견줄 만하다. 그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예농독서회' 사건을 관심있게 보도했다.

□ 예산공립농업학교 독서회 사건 관련자 형량

※1933년 3월 6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만경좌 사건’으로 재판

성명	본적지	학년	형량
金用在	충남 당진읍 채운리 186	기졸업(1932년)	체포구금6개월
임의재	충남 천안군 성환면	기졸업(1932년)	체포구금6개월
김기성	충남 청양	기졸업(1932년)	체포구금6개월
姜鳳柱(21세)	제주도 제주읍 이도리	5학년생	징역3년
鄭鍾浩(23세)	예산군덕산면 삼교리	5학년생	징역2년
韓定熙(21세)	청양군 남양면 홍산리	5학년생	징역2년
朴培薰(24세)	예산군 오가면 효림리	5학년생	징역1년
金炯來(20세)	천안군 풍세면 미죽리	5학년생	징역1년
金奎煥(19세)	천안군 광덕면 신흥리	3학년퇴학생	징역1년
吳日圭(19세)	보령군 웅천면 성동리	3학년퇴학생	징역1년
朴定淳(20세)	청양군 청양면 읍내리	3학년생	징역1년
朴熙南(20세)	당진군 당진면 우두리	3학년생	징역1년
재학생 80여 명 체포구속 연행 취조			

2. 충남만세운동의 효시 ‘대흥만세시위’

광주학생독립운동 직후인 1930년 3월 11일 대흥 동서리 대흥산(봉수산)에서 벌어진 대흥만세시위는 ‘충남지역 만세운동의 효시’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 주도자들의 좌익활동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이 또한 조명조차 되고 있지 않다.

한양대 인류학과 윤택림 교수는 ‘한국현대사 속에서 한 지방 좌익 지도자 가족의 삶과 생존’이라는 논문에서 이 운동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 운동의 지도부 가운데 한 사람인 조병언씨 후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응봉 입침리에 있는 계몽학원 교사들은 항일정신이 있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어려서 운동이 일지 않았지만, 대흥 공립보통학교에서는 기미 독립운동직후 항일만세운동이 있었다. 그것이 추적되어 계몽학원 교사들이 모두 감옥에 갔다. 조병언, 강찬희, 김만복 씨가 모두 공주감옥에 갔다. 이 사건이후 계몽학원은 일제에 의해 폐지되고 학습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흥국민학교로 흩어져서 공부했다’

당시 재판기록을 보면 이 운동을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피고 강찬희, 김만복은 소화 5년 1월 20일경, 예산군 응봉면 입침리 피고 조병언의 집에서 동 보통학교 6학년생인 배덕근에 대하여, 광주에 있어서의 내선인 학생의 총돌 사건을 설명하고, 작금 각지에서 조선인 학생이 혹은 동맹 휴교하거나, 혹은 만세를 부르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 이 사건에 대하여 “그 잘못이 일본인 학생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자가 한국인 학생만을 검거 구속한 것은 차별적인 관념으로 우리 조선인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하여, 맹휴(盟休) 또는 만세를 부를 것을 선동 교사<중략> 학생들은 마침내 소화 5년 3월 11일 오후4경,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소재의 산위에서 같은 학년 생도 30명에 대해, 광주 학생 사건에 대한 당국자의 처지를 비난하면서 “우리한국인 학생은 한가하게 면학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하고, 또 윤소현, 김찬환의 두사람은 만세를 고창하므로 모두 치안을 방해하기에 이른 자로서, 공판에 부칠 범죄의 혐의는 충분하다”

이상 일제강점기에 예산지역에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좌익성향의 항일운동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 1989년부터는 좌익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후세에게 존경 받을 만하고 우리정부에 도움이 됐다면 공적에 따라 서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주의가 붕괴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 남북이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여기에 있다. 이데올로기라는 낡은 관념의 틀에 묶여 언제까지 선조의 업적이 묻혀 지고, 그 후손들이 사회의 냉대 속에 살아가게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좀 더 이들에 자료발굴과 연구를 통해 올바른 역사적인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 

우국지사 동농 김가진 선생 90주기를 추모하며



김 삼 응
前 독립기념관장

한말 고관 출신으로 독립운동 투신

7월 4일은 동농(東農) 김가진(金嘉鎭)선생이 사거하신 지 90주년이다. 동농은 한말의 격랑 속에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그리고 국치 이후에는 국내외에서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조국 광복을 위해 온몸을 던진 독립운동의 원로이자 시대의 풍운아다.

한말의 고관대작 가운데 독립운동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동농은 달랐다. 그것도 이름만의 참여가 아니라 국내에서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의친왕의 중국 망명을 주도하는가 하면, 북간도군정서의 고문으로서 무장투쟁을 지도하였다. 그의 생애는 거대한 한 편의 대하드라마였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며느리까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피를 이은 손자, 증손녀들도 민족운동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족사의 민족운동의 유전자(DNA)는 동농의 가슴에서 뿌려졌다.

한말 정부 고관의 아들로 태어난 동농은 10대 중반에 이미 경(經)·사(史)·자(子)·집(集)에 통달할 만큼 총명하고, 20대에는 창강 김택영·구당 유길준·도원 김홍집 등 당대의 청년 명사들과 교류하면서 뜻을 키웠다. 31세 때 규장각 검서관을 시작으로 사헌부 감찰, 우정사총판, 형조정랑 등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문과에 급제한 뒤에는 청국 천진주재총사관, 주

차일본국판사대신 등 외교관을 지냈다. 이어 공조참의, 안동대도호부사, 동부승지, 이조참판, 병조참판, 공조판서, 농상공부대신, 특명정권공사(일본 주재), 중추원1등의관, 독립협회 회원, 황해도관찰사, 황해도재판소 판사, 궁내부특진관, 중추원의장, 법부대신, 충청남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굵직한 경력만을 띄엄 띄엄 소개한 것이 이렇다.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하여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박영효의 국왕암살음모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적도 있으며, 일본에서 서재필을 도와 건양협회를 결성하고 석유직수입회사의 설립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일본정부에 의해 구속되기도 하는 등 시련을 겪었다.

64세 때인 1909년 동농은 대한자강회의 계승단체인 대한협회 회장이 되어 친일매국단체 일진회를 성토하는 등 기우는 나라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으나, 1910년의 국치를 막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일제는 한국을 병탄하면서 이른바 ‘조선귀족령’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구한국 중신들에게 작위와 은사금을 주었다. 왕족인 이재완 등 5명에게 후작, 이완용 등 매국노에게 자작, 윤용구 등 43명에게 남작을 주었다. 동농도 이때 남작이 수여되었다. 일제가 병탄에 기여한 매국노 외에 구황실의 왕족과 귀족, 구한국의 중신들에게 작위를 준 것은 반일감정을 느그러 뜨리고, 이들을 친일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일제가 준 남작은 동농에게 생애를 두고 씻기 어려운 오점이 되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왜적으로부터 작위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회한이 되어 노구를 이끌고 결사보은의 정신으로 독립운동에 온 몸을 던졌다.

일제의 작위를 받은 수작자 대다수는 친일파가 되어 더욱 일제에 충성을 하고, 윤용구·한규설·유길준·민영달·홍순형·조경호 등은 죽음을 무릅쓰고 병탄 2년 뒤에 작위를 반납했다. 동농도 그동안 작위는 받았으나 작위에 따른 연금과 은사금의 수령을 거부하다가 작위를 반납하였다.



▲ 한말 고관 출신으로서 남은 생애를 조국 광복의 길에 바친 동농 김가진 선생

동농은 혹심한 감시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3·1운동을 맞아, 비밀결사 조선민족 대동단(약칭 대동단)을 조직하여 총재에 추대된다.

동농은 대동단을 통해 지하에서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는 등 항일 투쟁을 전개하고, 의친왕 이강(李垹)의 국외 탈출을 시도한다. 일경의 감시망이 좁혀들자 1919년 10월 아들 의한과 함께 임시정부가 수립된 상해로 망명했다.

동농은 누더기를 걸치고 3등 열차에 몸을 실어 국경을 넘으면서 통한에 찬 심경을 시 2수로 읊었다.

나라도 임금도 망하고 사직도 기울었는데
부끄러움 안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늙은 몸이지만 아직도 충천의 기운 남아
단숨에 만리길을 떠나는구나.

민족의 존망 앞에 어찌 이 한 몸 돌보랴
천리지망(天羅地網) 경계망을 용케 벗어났네
누가 알 것인가 3등 객실 안에
누더기 걸친 늙은이가 옛적의 대신인 것을.(원문은 한문)

동농이 망명할 때 그의 나이 74세였다. 임시정부는 동농을 고문으로 추대하면서 충절을 기렸으나, 국내에 남은 가족이 겪은 고통한 필설로 다 하기 어려웠다. 상해에서 국내 동지들을 통해 의친왕의 망명을 도모하여 1920년 11월 중국 안동까지 탈출에는 성공했으나 일경에 붙잡히고 말았다. 의친왕은 국내로 압송되고 대동단의 조직이 발각되어 전협 단장 등 간부들이 체포되어 처형되는 등 혹독한 탄압을 당했다.

의친왕 망명의 실패에도 동농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대동단본부를 상해에 설치하고 국내 조직과 연계하는 한편 1921년에는 북간도군정서 고문에 취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77세가 되는 1922년 7월 4일 파란땀은 생애를 접었다.

함께 망명한 아들 의한도 대동단원과 광복군에 참여하고, 망명한 시아버지를 보필하고자 국내에서 탈출해온 며느리 정정화는 독립자금의 마련을 위해 전후 6차례나 국내에 잠입하는 등 가족이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나는 《대한매일신보》(현 서울신문) 주필로 재임할 때인 1998년 8월 4일치에〈'수난 4대



▲ 동농 김가진 선생의 독립정신은 그 아들인 성엄 김의한 선생과 며느리 수당 정정화 여사에게도 오롯이 전달되었다(가운데가 現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

(代) 독립운동가 가문>이란 칼럼을 썼다. 해방 반세기가 넘을 때까지 친 일파들이 독립운동가로 둔갑하는가 하면 기념관, 문학상, 학술상 따위가 넘치는데, 동농이 보훈심사 과정에서 서훈이 배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14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수난 4대’ 독립운동가 가문

무궁화가 피고 태극깃발이 물결치는 8월, 우리는 해방 53년과 정부수립 반세기를 맞는다. 여전히 분단상태에서 북쪽은 기아, 남쪽은 실업의 고통이 따르지만 아무려면 일제식민지 시대의 참혹했던 생활에야 비하랴.

8월이면 우리는 감사해야 할 수많은 애국지사 순국선열을 생각한다. 해방을 못보고 눈을 감은 선열들과 해방 후에도 독재정권에서 신산한 삶을 사신 지사들을 잠시라도 생각하면서 이 8월을 맞았으면 싶다.

흔히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고 했다. 그만큼 일제의 탄압이 심했고 역대 정권이 애국지사들과 유족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데서 생긴 말이다.

나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3대가 ‘망한’ 집안을 알고 있다. 실제로는 4대째 수난과 시련을 겪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문의 수난사이기보다 왜곡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의 단면이라 하겠다.

동농(東農) 김가진(金嘉鎭)은 상해임시정부 고문과 북간도군정서 고문을 지낸 독립운동가다. 망명에 앞서 항일단체 대동단을 조직, 총재로 있으면서 의친왕 이강(李垹)의 상해 탈출을 기도하여 만주 안동현까지 갔으나 붙잡히고 동농은 74세의 고령으로 상해에 망명했다. 그 가문의 고난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둘째아들 의한(毅漢)은 부친과 함께 망명하여 대동단원과 광복군 창건에 참여하다가 해방



▲ 지난 2006년, 재북 애국지사 후손들로 구성된 방북성묘단을 통해 동농 김가진 선생의 증손녀이자 성엄 김의한 선생-수당 정정화 여사의 손녀들이 할아버지인 성엄 김의한 선생의 영전에 술잔을 올릴 수 있었다(좌측부터 둘째 김선현, 막내 김미현).

후 납북되고, 며느리 정정화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뒤를 따라 상해로 탈출하여 임정 밀사자격으로 독립운동자금 모금의 밀명을 띠고 여섯 차례나 국내에 잠입하면서 밀명을 수행했다. 정정화의 저서인 ‘長江日記’는 여성 독립운동가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다. 손자 자동 씨는 4·19 이후 진보매체인 ‘민족일보’ 기자로 일하다가 군사정권의 핍박을 받고 이후에는 민간 통일운동에 헌신해왔다.

저항하다 탄압받는 민족양심

쑤씨의 사촌형 석동 씨도 광복군으로 활동했다. 자동 씨의 큰딸 진현 씨는 유신시절 학생운동으로 대학에서 제적되고 졸업 후에는 의료보험연합회 노조위원장을 지냈으며, 둘째딸 선현 씨는 노태우정권 시절 웨스트팩은행 노조위원장으로 외국계은행 노동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탄압과 시련이 따랐던 것은 당연하다.

동농에서 선현 씨까지 4대째 이어지고 있는 이 가문의 고난은 한 가족사의 아픔이기보다 민족사의 비극이다. 바로 일제와 독재에 저항하고 탄압받는 민족적 양심의 전형이다. 동농의 가문뿐만 아니라 상당수 독립운동가 후손이 독재정권과 싸우다가 고난을 겪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솔직히 국민이 정권교체를 선택한 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그늘진 곳에는 햇볕을 비추고, 굵고 흰 것은 펴고, 단절된 것은 이으라는 시대적 소명이었다. ‘정직한 역사를 되찾으라’는 소망이었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동농의 서훈을 또 다시 거부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제로부터 ‘남작’을 받았다는 것이다. 물론 ‘남작수여’는 악질 친일파의 대명사다. 그렇지만 동농의 경우는 다르다. 일제는 종3품 이상 고관 72명에게 작위를 주면서 “조선귀족들은 한일합방에 찬성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각종 기록은 “동농은 작위를 거절했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합병 후 작위를 주었으나 불락(不樂)하였다”(조선독립소요사론)고 썼다. 또 설혹 작위수여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후 ‘이공속죄(以功贖罪)’ 즉 “공을 세우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대원칙이다.

무원칙한 보훈처의 처사

정부는 제2건국을 표방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포했다. 그렇다면 임정 법통을 이어받은 정부가 임정고문을 지낸 동농을 친일부역자로 몰아 구정권과 똑같이 서훈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주변에서는 국가보훈처가 동농의 후손들이 서훈심사의 불공정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반정부적인 활동을 해온 전력 때문에 서훈이 거부된 것으로 인식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동농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훈장을 준 국가가 그 장본인을 제쳐놓은 것은 모순이다.

‘만절(晩節)을 보면 소지(少志)를 안다’고 했다. 동농의 경우가 그렇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기록을 뛰어넘어 4대째 시련을 겪고 있는 동농가문에 더 이상의 절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합당한 서훈과 함께 상하이 송경령 능원에 방치된 동농의 유해를 한국시켜 뒤늦게나마 애국지사로 대접해야 하겠다. 

원코리아페스티벌 27년을 돌아보며



김희정
원코리아페스티벌 실행위원회 부위원장
원코리아페스티벌 한국위원회 대표

1985년, 광복 40주년을 계기로 하여 새로운 통일의 비전창조를 목표로 일본 땅에서 시작된 <원코리아페스티벌>은 어느새 27주년을 맞이하였다.

그 당시는 40년 동안 갈라져 있는 조국의 분단과 대립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착 상태였으며 특히 재일코리언들에게 있어서 통일에 대하여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또한 재일코리언들의 세대교체가 점점 진행되어 감에 따라 2, 3세가 중심이 되는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줄어들어 가고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원코리아페스티벌을 처음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개최해 온 정갑수 실행위원장은 통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의 창조와 새로운 방법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의 창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부분을 살리려고 노력했다. 흔히 젊은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록, 재즈 등과 같은 현대음악이나 영화, 연극, 회화 등 현대 예술을 중심으로 개최함으로써 통일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과 이미지 전달에 노력해 왔다. [원코리아]라고 굳이 영어를 사용한 것도, 또한 한국말 표현으로 통일이 아니라 [하나]를 사용하였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게 새로운 통일의 비전을 창조하려고 악전고투하면서 모색해온 비전도, 90년대 초에

야 겨우 명확한 상을 그리게 되었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삼 팔선이 없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재일코리언들이 먼저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원코리아]의 상징이 되고, 조국인 남과 북, 해외 한국인들의 다리역할을 하면서 원코리아의 실현에 공헌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세계시민으로 연결되는 아시아 시민 창출을 위한 '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한다' 라고 하는 비전이다.

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그 당시 한국과 북한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남북 합동 공연]을 1990년에 처음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대한민국의 김택수 사물놀이와 북한의 김정규 씨를 초청하여 남과 북의 출연자가 함께 무대에 서는 최초의 [남북 합동 공연]을 실현하였고 그 다음 해에는 재일한국청년회와 재일본조선취주악단을 동시에 출연시켰으며 그 후에도 어머니 합창단들과 민족학교 학생들의 출연 등 다양한 형태로 [남북한의 공동 출연]을 실현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이 계기가 되어, 1993년경부터는 한국의 민단과 조선총련이 직접 합동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원코리아]와 [하나]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행사를 하였다.. 예를 들면 [원코리아 퍼레이드], [원코리아 바둑대회], [가와사키 하나페스티벌], [오사카 하나마투리] 등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점점 [원코리아]와 [하나]라는 이미지가 일본에서 통일의 상징으로서 확립되고 정착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원코리아페스티벌이 또 하나의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아시아공동체]를 제창 할 당시에는 [대동아공영권]을 연상하게 한다고 반발하거나 여차피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상대도 해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이 현실적이고 정치적, 경제적인 과제로서 활발하게 논의되어지고 있다.

지난 27년 동안 원코리아페스티벌은 매년 1회도 빠지지 않고 계속 열려왔으며 1회 때에는 3일간 참가한 사람들이 총 1,000명도 안 되는 출발이었지만, 스태프들과 관계자 외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 해마다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발전되어 왔다. 1999년의 이쿠노(生野) 코리아타운개최에서 1만 명의 규모가 되었고, 2002년부터 오사카시의 초청에 따라 현재 오사카성 공원(大阪城公園) 태양의 광장으로 옮겨 온 후에는 약 2만 명 규모가 되었으며 지금은 한류의 뜨거운 열기도 한 몫 해주는 덕분에 하루에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로 성장하여 왔고, 10회째인 1994년부터는 동경에서도 시작하여 지금까지 15회를 개최해 왔다.

2004년부터 동경의 재일코리언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운영, 개최하여 요요기공원(代々木公園)에서 약 2만 명이 모이는 규모의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1998년에는 미국에서도 개최하였고 같은 해 한국의 의정부시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원코리아페스티벌의 교



▲ 1997년, 원코리아페스티벌 행사를 재미동포들과도 함께 하고자 뉴욕을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했고 그 기사가 미주 조선일보에 나왔다. 1998년에는 원코리아페스티벌 행사가 실제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류가 시작되어 매회 재일코리안 아티스트들이 출연하기도 하였다. 그외에도 심포지엄이나 포럼, 토크쇼, 영화 상영회, 강좌 등 다양한 특별행사도 많이 열렸다. 특히, 의미있는 행사로서는 2002년 일본에서 요리의 철인으로 유명한 미치바로쿠사부로(道場六三郎) 씨와 한국 궁중 요리의 일인자인 황복순 씨를 초대하여,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직접 만들어 주는 오조니(일본식 떡국)와 떡국(한국식)을 먹고 비교하는 요리 이벤트도 가졌는데(2002년). 100명 한정 모집에 약 5,000명이 넘는 응모가 있었다.

또한, 원코리아페스티벌은 그동안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신문, 잡지, 출판물,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여러 미디어에 특집 기사나 프로그램으로서 많이 소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1999년에 아사히신문이 매회 지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크기로 4일간 연속 특집 기사를 내 준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1999년 12월 31일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자정에 방송되는 NHK의 「가는 해, 오는 해」라는 프로그램에 원코리아페스티벌의 신년을 축하하는 모습이 이쿠노(生野) 코리아 타운에서 생중계 되었고 원코리아페스티벌의 주제곡 〈하나로〉(길옥윤씨·작곡)의 합창과 「21세기의 원코리아를 향해서 더욱 열심히

달려갑시다. 하나!』하고 외치는 정갑수 위원장의 구호에 맞춰 참가자 전원이 함께 [하나! 하나! 하나! 하나!]라고 한국말로 크게 외치는 음성이 일본 전 지역에 처음으로 방송된 것은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겨 준 획기적인 일이었다. 참고로 이 [하나 콜]은 행사 마지막에 반드시 참가자 전원이 무대 위에서 함께 외치는 것으로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원코리아와 원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참가자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 큰 소리로 하나를 외치는 의식이다.

원코리아페스티벌에는 직접 출연해 주고 있거나 작품 제공, 메시지, 수필, 대담, 좌담 등 각양각색의 형태로 실로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가하고 협력해 주고 있다. 그 중에는 수많은 저명인사들도 있는데 양석일(梁石日) 씨, 쿠로다세이타로(黒田征太郎) 씨, 코바야시교지(小林恭二) 씨, 이주인시즈카(伊集院靜) 씨, 사기사와메구무(鷺沢萌) 씨, 타와라마치(俵万智) 씨 등 많은 작가분들은 자신들이 게재하고 있는 미디어와 매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글을 써 주었는데 그 효과도 대단히 컸다.

그 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훌륭한 분들과의 만남과 교류는 원코리아페스티벌에 많은 자극과 용기를 주었다. 예를 들면 원코리아페스티벌에서 사회도 맡아 주었던 저명한 일본 작가 에이로쿠스케(永六輔) 씨는 [내가 원코리아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교와 유교가 하나가 되고, 지금까지 계승되어 온 문화나 전통이라는 부분도 하나라는 큰 틀에서 생각하고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93년 팸플릿에서) 라고 말하였고 동경대 교수 강상중(姜尚中) 씨는 원코리아페스티벌에 대해서 [단순히 두 개의 국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광장, 여러 사람들이 만나는 곳. 그것은 여러 기억을 가진 사람들의 만남의 장이라고 생각한다]고, (2000년「남북정상회담 환영 원코리아페스티벌 동경」에서 말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의견들을 모아보면 [원코리아]는 단지 조국의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 [광장], [조화], [다양성], [관용], [협동], [개성] 등 여러가지 다양한 이미지를 내포한 풍요로운 통일의 이미지로 성장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원코리아페스티벌은 대중적인 운동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코리아페스티벌은 재일코리아인이 민족의 한 일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민의 입장에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적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실현되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꿈과 이상을 가지고 그 실현을 향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상은 앞에서 말한 비전으로 [아시아 시민]에 집약되어 있다.

[아시아 시민]을 테마로 1993년에 타케다세이지(竹田青嗣), 문경수(文京洙), 가와무라미나토(川村湊), 정태균(鄭太均) 씨 등 4명의 논객에 의한 좌담회가 있었는데 「시민」의 개념을 역사적, 사상적, 사회적으로 정리하고, 「아시아 시민」실현의 조건과 가능성을 논의한 것은 원코리아페스티벌의 이념적, 사상적인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에도 「아시아 공동체」를 테마로 하는 본격적인 심포지엄을 계속해서 몇 번이나 개최하였다.

최근에만 해도 재작년에는 희망제작소의 박원순 대표이사(現 서울시장)를 초청하였고, 작년에는 한국에서는 이원범 동서대학교수를, 중국에서는 왕구 고베대학교수를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동아시아의 문제를 논의하며 좋은 성과를 냈다.

2002년 출판된 『이와나미(岩波) 소사전 현대한국·조선』과 2010년에 출판된 『재일코리아안 사전』에도 「원코리아페스티벌」에 관한 항목이 실렸다. 이후, 잡지와 출판물등의 코리아 관련 역사연표에 원코리아페스티벌이 기재되는 일이 많아졌고, 일본의 교과서에도 기재되는 등 원코리아페스티벌도 점점 재일동포의 역사에서 한 부분을 차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7년 동안, 세계의 정세도 극적일 정도로 크게 바뀌었다. 1985년, 경직된 사회주의의 개혁을 목표로 한 고르바초프의 등장은 전후 길게 지속되던 동서냉전의 종결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통일과 동구 사회주의제국 및 소련연방 자체의 붕괴로 격동해 나갔다.

그것은 조국남북 코리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고, 한국은 소련에 이어서 중국과 국교를 맺고, 북한도 일본과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여 한국과 북한은 유엔에 동시에 가맹하였고, 남북의 대화와 교류도 활발해져 갔다. 2000년과 2007년에 두번의 남북정상회담도 실현했다.

또, 근대의 국민국가의 통합이라고 하는 인류사적 실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유럽 공동체(EC)는 그 통합을 심화시켜 유럽연합(EU)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그 이후, 아메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해 세계각지에서 지역통합을 향한 모색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갔다. 이것은 동시에, 전쟁 후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등 보편적 경제 규칙 수호자로서의 아메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의 입장이 약해지고 세계가 다극화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계의 변화 속에서 아시아는 때로는 경제위기에 부딪히면서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대두는 크게 눈에 띄게 두드러졌고, 다극화의 일각을 차지하게 되었다.

85년 당시, 누가 이러한 세계변화를 예상할 수 있었을까? 원코리아페스티벌의 27년 세월



▲ 매년 오사카성 태양의 광장에서 열리는 원코리아페스티벌 행사에 약 2만 명의 관중들이 모여 관람을 하고 있다.

은 이 격동에 대하여 재일코리언의 입장에서 정말로 주체적이고 또 선구적으로 대응해 온 세월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재일코리언 사회의 상황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2세는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3, 4세가 중심세대가 되어 일본국적 취득,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의 증가에 의해 재일코리언의 전체 인구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오는 「뉴커머(newcomer)」와 중국에서 오는 조선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원코리아페스티벌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코리언, 한국에서 건너 온 「뉴커머(newcomer)」, 일본인, 재일 소수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스태프나 출연자로 함께 협력해 왔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과 삐걱거림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자극과 발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다문화상생」을 즐겁게 실행하는 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니, 원코리아페스티벌의 역사는 그동안 한국인의 비전과 꿈, 그리고 높은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선구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음악이나 무용 등의 예술과 문화를 통해 즐겁게 표현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일본이나 일본인들에게 “원코리아”라는 심볼적인 상징의 의미도 가지게 하면서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구체화 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온 27년이었고, 그러한 노력들이 원코리아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그와 동시에 원코리아페스티벌은 재일코리언이 남과 북, 일본의 틈새에 끼어 있는 힘없는



▲ 정갑수 실행위원장과 출연자들이 함께 '하나'를 외치는 모습

존재가 아니라 아시아나 세계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코리아가 하나가 되는 길에도, 일본 사회가 변화해 나가는 길에도, 나아가 아시아의 발전과 세계의 평화에도 공헌할 수 있는 존재임을 호소해 왔으며 또한, 젊은 세대들의 의식 속에 그러한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원코리아페스티벌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과 성과를 디딤돌로 삼고, 재정적 안정과 차세대의 육성을 도모하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재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원코리아페스티벌」을 설립하였고 지금은 공익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지난 2011년 원코리아페스티벌 한국 후원회가 만들어졌고 올해 두 번째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는 코리언들과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해외에도 지부를 두고 원코리아페스티벌 행사가 코리아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월드코리아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 지도 편달이 있기를 기대한다. ☘

서대문형무소를 거쳐 간 애국지사들의 넋을 추모하며



정혜진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3학년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

3호선을 타고 독립문역에 내리면 이곳이 바로 약 100여 년 전 독립문이 세워졌던 곳임을 누구나 바로 알 수 있다. 역사 내에는 역 이름에 걸맞게 당시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모형물들이 출구를 따라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 각 시기마다 달랐던 태극기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그리고 6.25까지의 역사 또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독립문 역사 내의 1차 관람을 통해 당시의 역사를 곱씹다 보면 목적지인 서대문형무소 출구에 다르게 된다. 걸보기엔 도심 속에 위치한 서대문형무소의 붉은 벽돌들이 흡사 학교 건물과 같다는 첫인상을 받았다. 이 날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서대문형무소를 찾은 방문객들이 많았다. 어르신들이나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단체로 관람을 하러 온 모양이었다. 때로는 외국인들도 형무소 내에서 관람을 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구에서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니 제일 먼저 서대문형무소 역사전시관이 눈에 들어왔다. 이 건물은 1층부터 2층, 지하까지 과거 이곳 서대문형무소에서 벌어졌던 일들



▲ 서대문형무소역사전시관

과 당시의 역사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 곳이었다. 1층과 2층은 민족저항실로 한일합병부터 광복까지의 독립운동가들의 활약과 주요 사건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당시의 유품 및 상황을 재현한 모형물들이 있어 관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2층을 돌아다니다 보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어 고초를 겪었던 애국지사들의 수형 기록표를 모아둔 전시실이 있다. 벽면이 모두 애국지사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 이곳에선 그들을 기억하고 또한 이곳에 오르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는 곳

이다. 사진을 남기고 싶었지만 그들 앞에서 숙연해지는 마음 때문에 차마 촬영을 할 수 없었다.

1층과 2층을 돌아보고 나면 지하실로 내려가게 된다. 지하실은 애국지사들이 고문을 당했던 상황을 재현한 곳이었다. 취조실과 고문실, 독방 등이 생생하게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었다. 또한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직접 앞이 보이지 않는 감투를 쓰고 수갑을 차거나, 그림자 영상 체험을 통해 본인의 모습이 촬영된 실루엣이 영상과 합쳐져 마치 자신이 독립운동가가 되어 고문을 당해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지하실까지 역사전시관을 둘러보고 나면 옥사 건물들을 관람하게 된다. 지하실을 나와 제일 먼저 가게 된 곳은 ‘중양사’였다. 중양사는 일제시기 형무소 조직기구와 감시도구, 재소자들의 하루 일과 등 전반적인 형무소 생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다. 1층은 간수들의 사무공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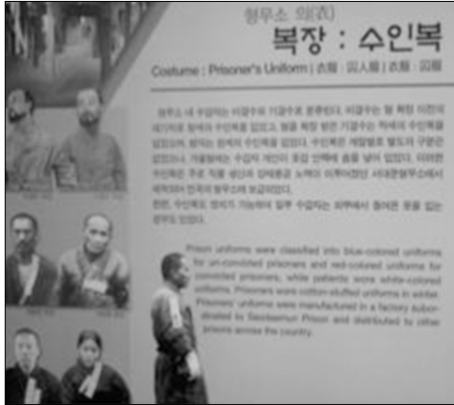
▲ 지하실에 전시된 고문상자



▲ 고문도구 체험



▲ 그림자 영상 체험



▲ 형무소 복장 수인복



▲ 중앙사 내부



▲ 유관순 열사 고문 모습 재현 인형

이용되었고 간수들은 이곳을 통해 옥사로 출입하였다. 형무소에서 수감자들이 입었던 복장인 수인복에 대한 설명도 있었으며, 일제 침략에 맞선 독립운동가들의 선열을 기리기 위해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중앙사를 나와 다음으로 관람을 한 곳은 ‘공작사’였다. 공작사는 공장건물이자 수감자들의 노역이 이루어진 현상이었다. 일제는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형무소 및 군부대, 관공서 등의 물품을 조달했는데 이곳에서는 주로 의복과 옷감이 생산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군수용품이 생산되기도 했다. 공작사를 돌아보면 독립운동가들의 노역에 대한 기록이 전시되어 있다. 다음은 백범김구의 <백범일기> 중 노역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구절이다.

‘아침저녁 쇠사슬로 허리를 마주 매고 축항공사장에 출역을 한다. 흙 지계를 등에 지고 10여길 높은 사다리를 밟고 오르내린다. 불과 반일에 어깨가 붓고 등창이 나고 발이 부어서 운신을 못하게 된다. 그러나 면할 도리는 없다.’

공작사를 나와 여러 옥사들 중 ‘여옥사’에 들어가 보았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들만을 수감하고 고문하기 위해 지어진 옥사였다. 처음에는 지하 감옥으로 매립되어 있었으나 후에 발굴을 하게 되어 지금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특히 이곳은 유관순 열사가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다 순국하신 곳으로 ‘유관순굴’이라고도 불린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는 전시방에 들어가면 작은 집 같은 모형물이 있다. 이 모형물 안에는 인형이 있는데 고문을 당하는 유관순 열사와 고문을 하는 일본경찰이 재현되어 있다. 작은 인형이었지만 고문당하는 모습이 당시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었다.

여옥사에서 나와 마지막으로 야외 전시물들을 둘러보았다. 형무소 내에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



▲ 사각연못



▲ 한센병사



▲ 추모비

는데 일명 ‘사각연못’이라고 불리었다. 원래 이 연못은 일제강점기 재소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던 나전칠기 공장이 있던 자리로, 해방 이후에는 빨래터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연못 물이 오래 되었고 그대로 방치된 듯 보였기에 맑지는 않아 보였다.

다음은 ‘한센병사’와 ‘추모비’를 둘러보았다. 한센병사는 한센병을 앓고 있는 수감자들을 격리 수용하기 위해 지어진 옥사다. 다른 옥사와의 차이점이라면 옥사 내에 난방을 위한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 말은 다른 옥사들은 난방시설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한 여름에도 서늘한 옥사 내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수감되었던 선조들이 겨울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지내셔야 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좋지 못했다. ‘추모비’는 독립운동을 펼치다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어 순국하신 선열들의 넋을 되새기기 위해 조성되었다. 형태가 둥그런 그릇마냥 생겼는데 이는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킨 선열들의 민족정신과 자유와 평화를 향한 의지를 한데 모으고, 그 의지를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한다. 현재까지 총 165분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도 발굴하는 즉시 계속 등재할 예정이라고 한다.

형무소를 둘러보다 보면 커다랗고 둥근 터 하나를 볼 수 있다. 이곳은 ‘격벽장 원형 터’라는 곳으로 일제강점기 수감자들의 운동시설인 격벽장이 있었던 원래 자리라고 한다. 사형장을 향해서 수감자들이 운동을 하던 격벽장이 있었고 가운데 움푹 파인 곳은 간수가 서서 수감자들을 한 눈에 감시 하던 곳이다. 정말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었다. 일제의 치밀함과 잔인함이 잘 나타나는 곳이었다.

마지막으로 사형장을 둘러보았다. 사형장은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다. 촬영이 허가 되더라도 아마 사진을 찍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곳은 5m 높이의 담장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다. 걸보기엔 그냥 집 한 채 같아 보이는 이곳에서 선열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다고 생각하니 절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사형장 앞에는 미루나무 한 그루가 높이 서 있었다. 일명



▲ 격벽장 내부



▲ 간수의 수감자 감시 장소



▲ 통곡의 미루나무

‘통곡의 미루나무’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사형장 건립 당시 심어졌는데,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애국지사들이 마지막으로 이 나무를 붙잡고 조국의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하는 원통함을 눈물로 토해내며 통곡했다고 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사형장 안쪽에 같은 시기 심어진 미루나무 한 그루가 또 있다고 하는데 너무나 억울한 한이 많아서 잘 자라지 못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나무 한 그루에 선열들의 아픔과 역사가 담겨 있었다. 그 당시 이 미루나무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진다. 조금이라도 애국지사들의 마음을 이 미루나무가 위로해 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곳은 ‘시구문’으로 사형집행 후 사실을 은폐해야 할 경우 시신을 외부로 몰래 반출하기 위해 뚫어 놓은 비밀 통로라고 한다. 고문 등으로 남겨진 흔적이 많은 경우, 사형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 시신을 인도할 유적이 없는 경우 이용되었다고 한다. 원래는 200m 정도로 바깥과 연결되어 있었으나 해방 이후 일제가 붕괴시키고, 나중에 발굴하여 40m정도 복원되었다고 한다. 아까 보았던 격벽장과 같이 일제의 치밀함과 잔인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나는 곳이었다.

서대문형무소를 모두 둘러보고 아까 들어왔던 입구를 통해 다시 밖으로 나왔다. 아파트가 보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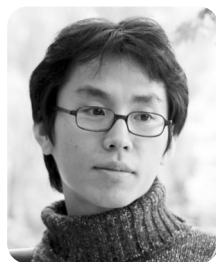
▲ 시구문

차들이 달리는 도심의 중심인 이곳은 100여 년 전에는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이 남아있는 역사의 중심지였다. 서울의 중심부,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이곳 서대문형무소에서 선열들의 아픔과 희생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애국지사들의 마지막 결전지, 서대문형무소’





영화 <크로니클>에서 <엘리펀트> 까지,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눈



이 두 희
자유기고가

27세의 젊은 영화 감독 조시 트랭크의 데뷔작 <크로니클>(2012)은, 초능력자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유행하는 블록버스터 영화의 하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리고 불완전한 십대들에게 갑자기 특별한 능력이 생겼을 때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조금은 새로운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이다.

영화는 내성적이고 조금은 기벽스럽기도 한 고등학생 앤드류가 어느 날 캠코더 한 대를 들고 자신의 일상을 모두 기록하고자 마음먹은 것에서 시작한다. 그에게는 병으로 아파서 누워있는 어머니와 사고로 직장을 잃고 변해버린 전직 소방관 아버지가 있다. 그의 사촌이자 유일한 친구인 맏만이 학교에서 외톨이처럼 지내는 앤드류를 보살피듯 데리고 다닌다. 그러던 어느 날 맏을 따라서 교외의 파티장에 간 앤드류는 또 다른 친구 스티브와 함께 들판의 동굴 안에서 빛나는 물체를 만난다. 그리고 그 날 이후 그들에게 조금씩 새로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능력들과 함께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남들의 주목도 받게 된 앤드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구를 지켜내거나 아픈 어머니를 낫게 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없었다. 맏과 크게 다투고 나서 또다른 좌절을 겪은 앤드류가 자책감을 넘어서 울분을 터트리기 시작하면서 영화는 관객들이 기대하는 슈퍼히어로가 아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반영웅(anti-hero)과 그로 인한 재앙의 이야기로 변해간다.

영화에 대한 다른 기사들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크로니클>에는 영웅은 마땅히 정의로워야 한다는 상식의 전복뿐만이 아니라, 소위 유튜브 세대 영화의 새로운 형식적 특징들을 역시 발견할 수 있다. 제목에서도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듯이 영화는 전지적작가의 눈을 통한 서사 방식이 아니라 영화의 이야기 안에서 앤드류가 직접 촬영한 캠코더 영상 등을 통해 임의로 전달되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소위 파운드 푸티지(found footage)라 불리는 이러한 방식은 마치 우연히 발견된 일련의 영상기록들을 통해 영화가 만들어진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다. 즉, 장르 규칙의 역설과 함께 연출의 의도된 흔적을 감춤으로써 기성 영화와의 차별점을 부각하고자 하는 감독의 계산이 함께 어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넘쳐나는 유튜브 영상의 자기서술적인 어떤 경향을 역시 참조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영화 <크로니클>에 대해서는 영화에서 보이지 않게 다시 드러나는 미국 사회의 시사적인 한 단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학교 총기 사고의 우울한 그림자들이다. 영화 속 앤드류에게 주어진 힘은 왜 그에게 정작 필요했을 소통과 이해의 능력이 아니라 하필이면 타인을 강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 쉬운 물리적 능력이어야만 했을까. 혹시 여러 총기 사고들의 원인에 대한 선정적인 게임 문화나 잘못된 팬덤 현상, 학교 사회의 왕따 문제에 대한 논평을 일단 차치한다면, 결국 그 아이들이 당장 손쉽게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총기를 통한 막강한 파괴력이었던 것과 같은 이유는 아니었을까. 어쩌면 영화의 주인공들 중 앤드류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장 큰 힘을 원했기 때문이고, 그가 그런 힘을 바란다는 것이 한편으로 그에게 도움이 가장 절실했다는 것은 아니었을까. 만일 총기 사건의 가해자가 된 아이들에게도 자기 표현의 충분한 기회나 강요된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여유있는 시간이 주어졌



▲ 영화 엘리펀트 中

다면 그들 역시 자기파괴로 치닫는 영화와 같은 비극적 결말을 피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영화 <크로니클>이 은유하는 우울한 현실은 우리에게 다른 영화 한편을 더 생각나게 만든다.

구스 반 산트 감독의 영화 <엘리펀트>(2003)는 1999년 일어난 콜럼바인 고교의 총기 사건을 서정적인 방식으로 기억하는 특별한 영화이다. 즉, 어느 화창한 가을날 이름 없는 십대들의 평범한 일상과 갑작스런 그 최후를 단조로이 읊는 일종의 송가(ode)와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영화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가진 존을 시작으로 친구들의 사진을 찍는 일라이와 여자 친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축구선수 네이틴, 몸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진 미셸이나 조숙한 척 자기과시적인 치어리더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따를 당하는 알렉스와 그의 하나뿐인 친구 에릭의 뒤를 따라가며 영화의 카메라가 천천히 반복하며, 각자에게 유일한 순간들로서 담고 있었다. 영화는 사건의 피해자들은 물론 가해자들의 모습을 함께 담으면서 어떠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논평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치 영화의 목적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들을 더없이 아름다우며 영속적인 무엇인가처럼 재현하는 것에 있는 것처럼 다루는 것이다. 영화의 제목은 코끼리에 대한 동서양의 우화로부터 따온 것이라 하는데, 그 형식에 있어서도 어딘가 선문답 같은 분위기의 영화인 것이 사실이다.

당시의 평가가 상업영화 감독의 성공적인 실험작에서부터 무책임하고 가식적인 허위라는 극단적인 비평 사이를 오고간 이 영화는 과연 십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적어도 콜럼바인 고교의 순진하면서도 치기어리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영악하기도 한 아이들과 그들의 잊혀진 시간에 대한 우리들의 애도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크로니클>과 <엘리펀트> 두 영화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가 장르적 비틀림



▲ 영화 크로니클 中



을 소재로 발전한 것이라면 후자는 엄연히 현실에 사건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한다. 어쩌면 단지 같은 세대들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다루었다는 이유로 공통적인 시사적 주제를 환기시키고 있을 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과 기억을 재현하는 시선에는 그 성격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영화가 가지는 한 가지 공통적인 시선이란 다른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거리감이다. 그것은 때로는 아이들만이 가진 시간에 대한 경외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갈망하는 힘에 대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두 영화 모두에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대를 대표하듯이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 낯선 타인들이 되어 버린다.

하지만 누군가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그것이 낯설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리라. 그리고 그런 낯설음이야말로 애초에 영화를 통한 관찰과 접근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 다시 말해 영화 <엘리펀트>의 엄숙한 카메라가 보여주는 그들만의 절대적인 시간에 대해서나, 그리고 영화 <크로니클>에서 강력한 힘을 통해 사회적 통제로부터 벗어나버리려는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리는 우리와 그들 사이의 간극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시 영화를 통해 이 새로운 세대가 말하고 듣는 이야기 방식을 쫓아간다거나 그들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려내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그 틈을 조금씩 메워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가능해질 것이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이 영화들을 (혹은 현실 속의 그들을) 보는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도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불편함의 원인은 좀 더 이야기의 잘잘못이 분명하게 가려지거나 마땅히 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들이 더 노력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바람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정작 어른들 역시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그리고 여전히 개인이나 가족, 혹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나 일어나는 세계적인 폭력에 대해서 그저 무책임하다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 어른들 역시 강력한 힘만을 바라고 있지 않느냐. 결국 애초 영화가 그리는 세계가 자신의 희망과 같지 않다는 것에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다른 세대를 다루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 편리한대로의 강요는 서로의 이해를 위한 아무 도움도 안 될 뿐이고, 새로운 세대를 단지 과거의 연장과 반복뿐으로 받아들이려 할 때 그들에 대한 불편함은 결코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참고로 영화 <엘리펀트>와 같이 콜럼바인 고교를 소재로 잘 알려진 다른 영화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볼링 포 콜럼바인>(2002)일 것이다. 이 영화는 감독 특유의 냉소적이고 회화적인 화법을 통해서, 설득적이면서도 때로는 선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총기 사건의 배경과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다른 폭력들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두 영화를 통해서도 동일한 소재에 대한 영화적 접근의 또 다른 극과 극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한 사람



홍 소 연
백범김구기념관 자료실장

1919년, 마흔네 살 아버지는 태어난 지 넉 달도 안 된 저를 두고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였습니다.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고요. 저는 다음해에 어머니의 등에 업혀 상하이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도 뒤쫓아 오셨습니다. 나라를 찾아야 하는 막중함 속에서도 가난하지만 잠깐 행복했습니다.

제가 다섯 살 되던 해에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가난으로 산후조리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게다가 낙상을 하여 병이 위중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무료로 치료해주는 병원을 찾아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으로 가야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지만, 아버지는 병원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허둥지둥 할머니가 달려가셨지만, 어머니는 이미 영안실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어린 동생과 함께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짓먹이 동생에게 끓인 물에 설탕을 타 먹였습니다. 동생은 할머니 빈 젓을 물고 잠들었고, 여러 번 중국고아원에 맡겨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동생을 업은 할머니가 중국 사람들이 버린 채소더미 속에서 먹을 만한 것을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고향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할머니도 도리가 없어 동생만 데리고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고향에서 부지런히 허드렛일을 하셨습니다. 밥을 잡수실 때마다 할머니는 동생에게 ‘오늘은 두 부자가 어느 집 처마 밑을 기웃거리며 밥이나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저마저도 고향으로 보내라시며 고생하여 모은 돈을 아버지께 부치셨습니다. 저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동생, 저, 세 식구가 아버지를 그리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중국에서 일본놈들에게 폭탄 던지는 일을 여럿 성공시켜, 하루가 멀다 하고 일본 경찰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중국 어디 있는지 말을 하라고, 달래기도 하고 욕박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할머니께 저와 동생을 일본으로 데려가 공부시키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아버지가 비밀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를 따라 우리 세 식구는 다시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중국군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열일곱 살에 독립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스물여덟 살로 중국 중경에서 죽을 때까지 일본군 점령지역에서 첩보활동을 주로 하였습니다. 스물두 살이던 1939년, 중경에서 독립운동하던 김효숙 누이를 만났습니다. 길가에서 누이가 수첩을 내밀며 글 하나를 써 달라고 하였습니다.

누이!

우리는 叛逆者!

現實과 妥協을 拒絕하는 무리외다.

우리는 革命者!

正義를 우리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외다.

그리고 우리는 先驅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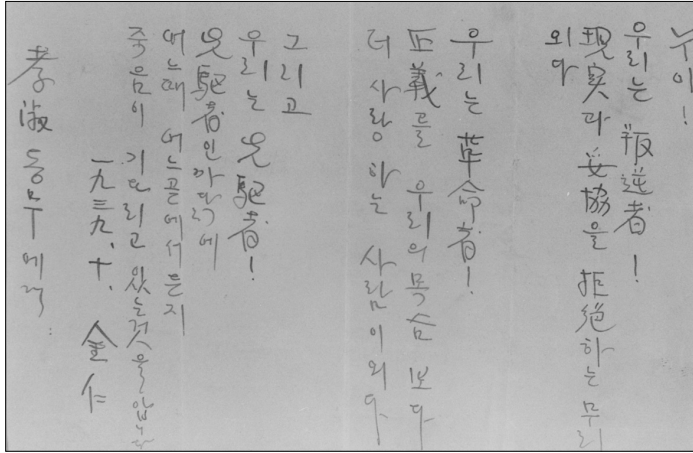
先驅者인 까닭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압니다.

1939. 10.

金 仁

孝淑 동무에게



▲ 백범 김구 선생의 장남인 故 김인의 자작시(1939년 10월)

저는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정근 선생의 따님 안미생과 결혼하였습니다. 딸 효자도 태어났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살던 중경은 높은 곳이면서 분지입니다.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일본군에게 밀려 중국이 수도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갑자기 규모가 10배 이상 커진 중경은 공기가 나빴습니다. 독립운동 하시던 어른들이 폐병으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폐병에 걸렸습니다. 공기가 나쁘기도 했지만 일본군 점령지역에서 첩보활동했던 긴장감이 병을 키웠습니다. 아내가 아버지를 찾아가 저에게 페니실린을 맞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 때에 페니실린은 아주 귀한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폐병으로 죽어가는 나의 동지들도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데, 아들이라고 특별히 손을 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일을 아버지는 《백범일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중경의 기후는 9월 초부터 다음해 4월까지 구름과 안개 때문에 햇빛을 보기 힘들며, 저기압의 분지라 지면에서 솟아나는 악취가 흩어지지 못해 공기는 극히 불결하며, 인가와 공장에서 분출되는 석탄연기로 인하여 눈을 뜨기조차 곤란하였다. 우리 동포 300~400명이 6~7년 거주하는 동안 순전히 폐병으로 사망한 사람만 70~80명에 달하였다. 이는 중경에 거주하는 전체 한인의 1~2할에 해당하는 숫자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중경에 거주하는 외국의 영사관이나 상업자들이 3년 이상을 견디지 못한다는 곳에서, 우리가 6~7년씩이나 거주하다 큰아들 인이도 역시 폐병으로 사망하였으니, 알고도 불가피하게 당한 일이라 좀처럼 잊기 어렵다.

1945년 3월 29일, 저는 늙으신 아버지와 젊은 아내, 어린 딸 효자를 두고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1924년 어머니가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가운데 늙으신 시어머니,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유랑하는 남편, 어린 두 아들을 두고 차마 감기지 않는 눈을 감으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감기지 않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제가 행복하기 다섯 달 전이었습니다.



▲ 왼쪽부터 장남 인, 김구 선생, 차남 신

1945년 8월 일제가 항복하고 우리나라에서 물러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쫓겨난 자리를 그들의 앞잡이가 차고 앉아 지도자노릇까지 하였다지요? 독립운동가들을 모략하고 천대하였다지요? 또 그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마침내 동족상잔까지 벌어져 국토와 민족이 상처투성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대한 일제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정의 때문이었습니다. 일제의 악랄한 지배와 수탈로 황폐해진 나라를 번듯하게 일으키고, 외세의 앞잡이로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민족반역자들을 처단하여 땅에 떨어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저는 불의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국민들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다는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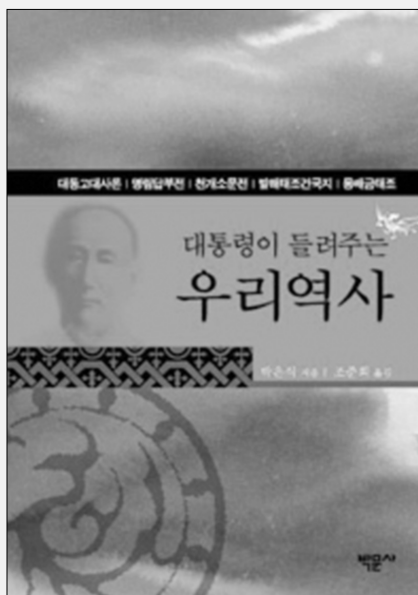
1945년 3월 29일, 목숨보다 정의를 더 사랑하다가 스물여덟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신 김구 선생 67주기에 삼가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이 들려주는 우리역사

박은식 지음 / 조준희 옮김 / 도서출판 박문사 펴냄



백암 박은식(1859.9.30~1925.11.1)은 황주 태생의 국학자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26세 때 평안도 유림 거두 박문일·박문오 형제를 사사했고, 상경하여 황성신문 초대 주필을 지낸 뒤 황성신문 사장·대한매일신보 주필을 역임하면서 언론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53세 때인 1911년 서간도에 망명해 민족학교인 동창학교에서 국혼(민족혼)의 부활을 염원하며 고대사 저서 집필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6개월 만에 『대동고대사론』을 비롯해서, 『동명성왕실기』·『명림답부전』·『천개소문전』·『발해태조건국지』·『몽배금태조』 6권의 책을 완성했다. 각 권의 주인공은 국조 단군 아래, 고구려 동명성왕, 명림답부와 연개소문, 발해 태조 대조영, 그리

고 금나라 태조 아골타다. 유실된 『동명성왕실기』를 제외하고 현전하는 다섯 작품은 백암 사상의 핵심으로서, 그의 역사의식과 영웅관이 뚜렷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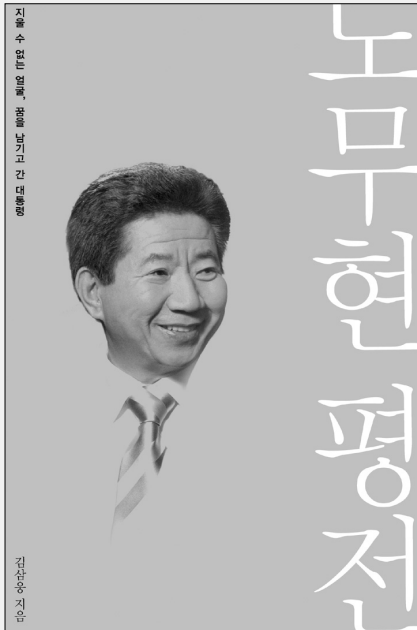
본 책은 본래 삽화가 없고, 『대동고대사론』과 『몽배금태조』의 경우 차례가 나뉘어 있지 않아 읽기 난해했다. 옮긴이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과 그림을 적절히 싣고 장절을 나누었다. 기존 백암박은식전집의 원문과 번역을 대조하여 많은 오역과 오타자를 바로 잡고 입력한 원문 10만 3천 6백여 자도 부록으로 넣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적 구실을 들어 역대 대통령 명단에 임정 대통령이 들어갈 수 없다는 치더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역사다. 우리는 이제 백암이 남긴 옥고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기억하고, 조국 역사의 긍지와 진정한 영웅,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평전

김삼웅 지음 / 도서출판 책보세 펴냄



사람 사는 세상, 그 희망의 증거를 남기
고자 모든 것을 바친 격렬한 영혼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었을까?”, “노무현
은 ‘패배자’ 일까?”

이 평전은 이 두 가지 관점에 주안점을 두고 기
술되었다. 최종 결론은 ‘역사’가 내리겠지만 먼저
‘민심’이 말해준다는 데에 저자의 방점이 찍힌다.

‘잘나가는’ 변호사 노무현이 세속의 영달을 뒤로
하고 ‘노동자의 빛’, ‘거리의 변호사’, ‘아스팔트
위의 전사’가 된 것은 암울한 시대의 부름이었고,
그를 정치로 이끈 것 또한 시대의 모순이었다. 정
치판에 뛰어든 그는 청문회 스타로 뿔뿔이 ‘3당 야
합’을 거부함으로써 강고한 지역주의의 벽에 막혀
가시밭길을 걷게 되었다.

시민은 그런 그의 고행에서 정치의 희망을 보게 되었고 마침내 ‘노무현 구하기’에 나섰으
니 ‘노사모’다. 정치의 변방이요, 소수파인 그가 민의에 힘입어 마침내 민주진보의 독자 진
영만으로 처음 대통령이 됨으로써 한국정치사의 신기원을 열었다. 그래서 그의 책무는 더욱
막중했고, 그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자 신명을 다했다.

그러나 수구기득세력의 집요한 발목잡기와 악의적인 왜곡에다 그 자신의 몇 가지 실책이
겹쳐 그의 정권은 파란을 겪어야 했으며 그는 끝내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듯 싶었다. 그
러나 지나고 보니 우리 역사상 한번도 ‘시민’으로서 ‘민주적 리더십’을 경험해보지 못한 국



민의 오해였고, 진보의 성공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족벌언론의 프로파간다였다. 그가 퇴임하고 나서 “그 후임을 꺾어보고, 수구언론에 의해 자행된 ‘실패의 덧칠’을 벗겨놓고 보니” 비로소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저자는 ‘인간 노무현’은 “정치적 소수파로서 우리 사회의 뒤틀린 권력구조 안에서 정치보복성 ‘토끼몰이’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패배자였다”고 결론 내린다. 백범이나 여운형, 링컨이나 간디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볼프 슈나이더가 바친 헌사대로 “승리자로 가득한 세상보다 나쁜 것은 없다. 그나마 삶을 참을 만하게 만드는 것은 패배자들” 곧 ‘위대한 패배자들’이었다.

일찍이 《적과 흑》의 작가 앙드레 지드가 도스토예프스키를 두고 ‘위인’을 말한 바가 있는데, 저자는 이 헌사를 ‘바보 노무현’에게 바치면서 “진정한 위인상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고 고금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진정한 위인은 자유롭고 온화하고 친근하고 대중적이다. 그는 사람들이 만지거나 주무르도록 자신을 내버려둔다.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들여다봐도 잃을 것 하나 없다. 또는 그를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그에 대해 감동하게 된다. 그는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에게도 공손히 몸을 숙이며 힘들이지 않고도 자신의 본성으로 쉽게 되돌아온다. 이따금씩 그는 자신을 포기하고 등한시하며 자신의 장점을 간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항상 제자리를 찾아 장점들의 가치를 드러나게 할 힘을 지니고 있다.”

‘사람사는 세상’ 꿈을 남긴 채 떠난 우리 시대의 ‘위인’에 대한 이 ‘평전’으로 그를 기리고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철기 이범석 장군 40주기 추모식

청산리 전투의 영웅인 철기 이범석 장군의 40주기 추모식이 5월 11일(금)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렸다. 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회장 서영훈)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의 추모식에는 각계 각층의 시민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 추모식사, 약력보고, 추모사, 의장대의 조총발사, 묵념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의암 손병희 선생 순국 90주기 추모식

지난 5월 18일(금),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의암 손병희 선생 순국 90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민족대표33인유족회(회장 나영의)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처 정양성 차장, 광복회 박유철 회장을 비롯하여 각계 주요 인사, 일반 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독립운동가 지복영 선생 공훈선양 학술강연회



독립기념관에서 선정한 5월의 독립운동가 지복영 선생 공훈선양 학술강연회가 지난 5월 21일(월),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부 기념식에 이은 2부 강연회에서는 윤정란 박사(서강대 연구원)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성광복군 지복영 선생’이라는 주제로 선생의 공훈을 기리는 강연을 하였다.

‘의병정신 나라사랑 국민정신’ 의병 학술회의

지난 5월 22일(화)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 회의장에서 ‘의병정신 나라사랑 국민정신’을 주제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의병정신선양회(회장 윤우) 중앙회와 청송군지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1부 개회식, 2부 학술강연회로 구성되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된 학술회의는 나라가 위급할 때 국가수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외세에 대항한 의병정신을 재조명하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하는 정신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광복회 박유철 회장, 본회의 김자동 회장과 조세현 이사를 비롯하여 많은 광복회원, 유족, 의병정신선양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독립정신 산악회 소식



지난 5월 26일(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산하 독립정신 산악회(회장 이호현)에서는 48차(수리산) 정기산행을 실시하였다. 비록 하루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산악회원들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독립정신 산악회의 정기산행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안내는 매월 본회 홈페이지(www.kopogo.com)에 공지된다.

제8기 독립정신 답사단 <화북지역 항일 무장투쟁지를 따라서>



제8기 독립정신 답사단 일정이 7월 17일(화)부터 7월 23일(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6박 7일간 중국내 항일 유적지 답사로 진행될 이번 제8기 독립정신 답사단의 답사주제는 <화북지역 항일 무장투쟁지를 따라서>이며, 답사지역은 광복군과 조선의용대가 활동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안-낙양-장치-죄권-섭현-한단-석가장-북경'이다.

'3·1운동의 발원지' 봉황각 100주년 기념식



의암 손병희 선생이 3·1운동을 구상한 서울 우이동의 봉황각 건립 100주년 기념식이 지난 6월 19일(화) 서울 강북구 우이동 봉황각에서 진행되었다. 천도교중앙총부(교령 임운길)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많은 천도교인과 시민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날에 맞춰 봉황각 경내 1층 강당에서는 7월 10일까지

'봉황각 준공 100주년 기념 유물 및 사진전시회'가 열린다.

봉황각은 1912년 민족대표 33인의 수장인 의암 손병희 선생이 세운 것으로 천도교의 성지이자 항일독립운동 지도자를 양성한 근거지다. 봉황각에서는 1912년부터 1914년까지 3년 동안 49일씩 일곱 차례에 걸쳐 천도교 간부들을 훈련시키는 연성수련을 통해 모두 483명에 이르는 교역자를 배출했다. 이들은 나중에 3·1운동의 핵심으로 활동했다.

■ 바로잡습니다

『독립정신』 63호(2012년 5·6월호) 67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 '3·1여성동지회(회장 박용옥)'를 '3·1여성동지회(회장 김정애)'로 정정합니다.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2년 5월, 6월 회비납부자 명단◆

회원명	5월	6월	회원명	5월	6월	회원명	5월	6월
(사)유정조동호선생 기념사업회	10,000		박인석	10,000	10,000	이혜숙	10,000	10,000
강만길	2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호현	20,000	20,000
강재욱	20,000	20,000	박형순	10,000	10,000	임재경	10,000	10,000
강찬모	20,000	20,000	반병률	10,000	10,000	임진택	5,000	5,000
곽태원	50,000	50,000	백낙청	10,000	10,000	장팔순	10,000	10,000
권상윤	10,000	10,000	백영미	10,000	10,000	전창일	20,000	20,000
권순갑	20,000	2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정동익		30,000
권영관	10,000	10,000	서영훈	30,000	30,000	정만기	30,000	30,000
길사원	10,000	10,000	서홍관	30,000	30,000	정지완		5,000
김경애	10,000	10,000	성인제약(주)	100,000	100,000	정철승	30,000	30,000
김광림	30,000	30,000	신명식	10,000	10,000	정환기	10,000	10,000
김동현	10,000	10,000	신영연	10,000	10,000	조기식	10,000	10,000
김모현		100,000	신영한	10,000	1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봉현	30,000	30,000	신준수	20,000	20,000	조영록		50,000
김삼웅	10,000		심재권	30,000	30,000	조영민		45,000
김선군	10,000	10,000	양인선	10,000	10,000	조용준	30,000	30,000
김성근	10,000	10,000	양진호	10,000	1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성록	10,000	10,000	염승훈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소중	10,000	10,000	염기남	10,000	10,000	조준표	10,000	10,000
김숙정	50,000	50,000	오성근	10,000	10,000	조희환	10,000	10,000
김연실	10,000	10,000	오승숙	10,000	1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용수	5,000	5,000	오영은	30,000	30,000	주철기	30,000	30,000
김원규	10,000	10,000	오은주	20,000	20,000	차영조	30,000	30,000
김 위	20,000	20,000	오정수	20,000	2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위현	50,000	50,000	원영애			최낙현	20,000	20,000
김윤수	30,000	30,000	유은숙	10,000	1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유원목	2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재홍	10,000	10,000	유종하	10,000	10,000	최영진	10,000	10,000
김정경	10,000	10,000	윤경자	30,000	30,000	최정식	10,000	10,000
김정인	10,000	10,000	윤영소	10,000	10,000	함세웅	30,000	30,000
김종규	10,000	10,000	윤종순	5,000	5,000	홍순권	10,000	10,000
김종성	10,000	10,000	윤한옥	10,000	10,000	황승일	10,000	
김정록	50,000	50,000	이건웅	10,000	10,000	홍승현	10,000	10,000
김종배	10,000	20,000	이계환	10,000	10,000	황용만	5,000	5,000
김중숙	10,000	10,000	이규호	30,000	30,000			
김진경	10,000	10,000	이두희	30,000	30,000			
김진모	20,000	20,000	이병규	10,000				
김진영	10,000	10,000	이상준	200,000	200,000			
김진현	50,000	50,000	이상배	10,000	10,000			
김판수	5,000	5,000	이영국	10,000	10,000			
김학근	10,000	10,000	이영숙	10,000	10,000			
김현모	10,000	10,000	이영후	30,000	3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용규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남만우	30,000	30,000	이윤옥	20,000	20,000			
노시선	30,000	30,000	이응국	5,000	5,000			
류동연	5,000	5,000	이인석	10,000	10,000			
문재선	30,000		이일선	30,000	30,000			
민향선	10,000	10,000	이재선	5,000	5,000			
박녹삼	10,000	10,000	이정재	50,000	50,000			
박동기	70,000		이종락	30,000	30,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중찬	100,000	100,000			
박아영	20,000	10,000	이창복	20,000	20,000			
박양수	10,000	10,000	이학효	10,000	1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향중	30,000	30,000			
박의란	30,000	30,000	이해준	20,000	20,000			
			이화순	30,000	30,000			

2012년 5월, 6월 기념관회비

회원명	5월	6월
최기창	10,000	10,000

2012년 5월, 6월 특별회비

회원명	5월	6월
(주)오토오티오	5,000,000	5,000,000
(주)아팩철강	3,000,000	3,000,000
정해구	100,000	
허수열	100,000	
김희선		50,000
남만우		50,000
서 점		50,000
김영조		50,000
이동철		660,000
김정록		500,000

◆ 입 회 원 서 ◆

이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택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직업		소속	
비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4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자유지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서대문형무소를 거처간 독립운동가 ①



허 위(1855~1908)

1855년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에서 태어난 허위는 유교적 환경에서 성장한 유생이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공포되자 전국 각지의 유림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나 국왕의 칙유(勅諭)로 의병을 해산시켰다. 이후 늦은 나이에 관직에 나아가 신학문을 접하면서 유교정신에 바탕을 두면서 근대화를 지향하여 만민평등과 부국강병을 주장하는 10개의 개혁안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국권이 강탈당하자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하여

1907년에는 철원읍을 점령하고 여러 차례 일본군 및 친일파들을 소탕하는 성과를 거두고 다른 지역의 의병진들과의 연합작전을 모색하여 13도 의병을 통합한 뒤 군사장으로 서울진공작전을 개시하였다. 이에 일본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은 물론 각국 영사관에 통문을 돌려 일제에 의한 침략의 불법성과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등 의병투쟁을 단순한 무력투쟁이 아닌 국제사회를 인식한 항일투쟁 노선으로 발전시켜나갔다.

그는 의병투쟁에 대해 오직 일본과 함께 이 땅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항일의식을 피력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주는 큰 업적을 남겼으며 자신의 의병투쟁이 비단 한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며 한국이 독립이 되어야 동양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는 동양평화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08년 9월 18일 일본 재판장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은 허위는 10월 21일 사형이 집행되어 54세의 일기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허위는 일생을 끝은 관리이자 의병으로서 부국강병과 국권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교수형에 처해져 순국할 때에도 당당하게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여 항일의지와 기상을 불태움으로써 애국정신의 전형을 남겨주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부하들에 의병항쟁을 지속하게 만들고 강제병합 이후에도 독립투쟁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서대문형무소가 항일투쟁의 산실이자 종착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HOW TO LIVE SMART

② 올셰어로 스마트하게 사는법

꼬마 피카소를 위한 전시회를 열어보세요

말아미의 그림에서 천재성이 보이나요?
혼자 보기 아깝다면 작품 전시회를 열어 보세요
이게 다 뭐냐고 동료들이 묻는다면
꼼꼼하게 작품설명도 해주시구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관심을 보인다면
웃이기는 척 출력버튼을 누르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한 장 더 뽑아드릴게요

때론 천재를 발굴하는 큐레이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HOW TO LIVE SMART]

※ 각 기능은 해당 모델에 한함

Samsung GALAXY Note



NX20
삼성 스마트카메라

고화질의 사진을 찍어 SNS로 바로 업로드하는 [소셜공유]



인터넷과 케이블 없이 바로 프린트하는 [Wifi-Direct 기능]



삼성 스마트 프린터



Samsung Notebook SERIES 9